

제 2 편

부천의 지명유래

1. 소사동 일대
2. 성주산 일대 (심곡본동, 심곡본1동)
3. 심곡1, 2, 3동 일대
4. 원미산 일대
5. 할미산 일대 (범박동, 계수동, 옥길동, 괴안동)
6. 춘의산 일대 (춘의동)
7. 상오정면 일대 (도당동, 원종동, 작동, 여월동)
8. 하오정면 일대 (고강동, 원종동, 작동, 여월동)
9. 송내동, 상동 일대
10. 오정동, 대장동 일대

1. 소사동 일대

소사동은 원미구와 소사구에 걸쳐 있는 동으로 소사구에는 '본'자가 붙은 소사본1동·소사본2동·소사본3동 등 3개 동이 있고, 원미구는 '본'자가 붙지 않은 소사동이 있다. 지번은 원미구 소사동이 1번지부터 시작되고, 소사구 소사본동은 80번지부터 시작된다.

소사동은 남쪽으로 시흥시와 접해 있으며, 경인선과 경인국도가 동서로 통과하며 남서쪽으로 비교적 경사가 급한 구릉지대이다.

조선시대 부평도호부, 이후의 부평군 때는 옥산면 소사리 지역이었고, 1899년 경인선 소사역이 개통되면서 역 이름이 된 동리이다. 1914년 부천군이 신설되어 계남면에 속했다가 계남면이 1931년 소사면, 1941년 소사읍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소속명이 소사면에서 소사읍으로 바뀌었다.

1973년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되자 소사동으로 개칭되고, 이 후 다섯차례에 걸친 통·반 개편으로 21개 통, 210개 반을 관할하던 중 1982년 9월 1일 제 546호에 의거 소사1동과 소사2동으로 분동되었다.

계속적인 인구 급증으로 인해 1985년 11월 15일자로 1동을 다시 1동과 3동으로 분동하였다가 동명칭을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6년 10월 말 현재 통계는 소사본1동이 5,770가구에 18,302명이 살고 있고, 소사본2동은 3,607가구에 10,734명이 살고 있으며, 소사본3동은 9,590가구에 32,242명이 살고 있어 소사구 소사본동은 3.01km^2 면적에 총 19,967가구 61,278명이 살고 있다. 한편 원미구 소사동에는 0.55km^2 면적에 4,206가구 12,497명이 살고 있다.

소사는 '소사'로 표기하고 토박이말로 '소새(쇠)'로 읽는다. 이곳에 오래 산 촌로들은 지금도 소새(쇠)라고 말하지 소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1943년 이태준이 지은 『돌다리』 중 無緣에 '소새'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예전에 철광이 있었다고 하여 '소쇠'라고 불여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확증할 수 없다.

소새는 '가는(고은) 모래'를 일컫는다.

한편 소쇠를 추론한다면 소쇠의 '쇠'가 철광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소새는 크게 윗소새와 아래소새로 구분되는데 윗소새는 예전 소사1리로 소사본1동 2통, 아래소새(예전 소사2리)는 예전 소사3리 삼거리에서 쌍느티나무 부근으로 소사본2동 3, 4, 5통에 해당된다.

소사동 일대를 조리터라고도 부른다. 부천은 지질학적으로 보아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가 성주산자락의 소사동을 중심으로 한 모래나 쇠가 나는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배수가 잘 되어 '조리터'라 불리기도 하며, 구릉과 야산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땅에서 잘 자라는 복숭아재배에 적합하였다. 이 지역의 지명이 옥산과 소사인 것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두번째가 중동들을 중심으로 한 川(냇가)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들로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지명이 石川(일명 돌내)인 사실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첫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소사동은 소사천을 끼고 있어서인지 조리에서 물이 빠지 듯 잘 고이지 않은 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사(소새)라는 명칭이 생긴 것이며 이는 평택시의 소사도 지질면에서는 이곳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사본동과 시흥시 대지동을 끼고 넘는 고개인 여우고개에서 동편에 소사천이 흐르고 있었으나 현재는 복개되어 그 위로 2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고 경인선 밑으로 통과하여 심곡천(현재는 복개됨)으로 이어져 있다.

소사 삼거리 초입에 닷새장(2일과 7일)이 성행되던 일제시대 때 경기도 시흥군 신천리(현 시흥시 신천동, 일명 뱃내장터)와 경기도 김포군 장기리(현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 일명 황어장터)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경기 일대에서 손꼽힐 만큼 유명했던 우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은 없지만 대체로 위치는 현 도원극장 일대로 지적되며, 이곳을 장터(예전 소사2리)라 불렀다.

예전에 소사동 일대는 관직에서 물러난 선비들이 낙향하여 살기도 하

였고 한국 현대시의 대부라 일컬어지는 정지용같은 문인도 한 때 이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경인철도는 아니지만 철도가 이 마을을 끼고 간 흔적은 옛날 지적도에 나타나 있다. 이 일대에 본격적인 도시형성이 되지 않았던 시절만 하여도 철로의 뚫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전에 우성교통이 있던 쪽과 소사본동 제2어린이 놀이터를 거쳐 신한주철 뒤로 나 있는 길이 그 때의 철로가 가설되었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1) 구부골: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마을 이름에 쓰이는 '-골'과 '-울'은 대개 마을의 위치가 골짜기 안이나 그 입구에 있는 경우가 많다.

2) 앞뜰: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3) 할미산: 소사본3동 한신아파트 뒷산을 이르는데 모양이 노파와 같아 붙여진 것으로 전해오고 있으나 할미는 '한메' 즉 '큰 산'을 뜻한 것으로 보이므로 할미산은 주위에서는 가장 큰 산을 이른다. 이곳은 1950년대 말 박태선 장로교의 신앙촌이 들어오면서 더욱 유명해진 산이다. 이 산에 오만제단이 있다.

4) 뒷골살: 연홍사 뒷산, 즉 웃소새산신제가 행해지고 있는 도당산을 이르는 말인 것 같으나 자세히 알 수 없다.

5) 휴암산: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토박이 말인 부엉이산을 한자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6) 영신마을: 소사본3동과 소사본2동 일부를 이르는 명칭이다. 1950년대 말 범박동에 신앙촌이 형성될 때 이 지역에 신앙촌의 남자신도들을 위한 숙소가 있어 남자숙소마을로 통칭되기도 하였다. 그 후 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오래 살자는 뜻으로 영신마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부천시가 되기 이전은 소사4리 지역이었다.

7) 벌터: 소사본3동 태안산업 앞 소삼파출소가 있는 지역의 명칭으로 허허벌판에 몇 채 안되는 집이 있어 붙여졌다.

3) 봉매(배)산: 시흥시 대야동으로 넘어가는 여우고개 동편에 위치하

고 있는 표고 129m의 산으로 이곳에는 봉배약수터(소사본동 산 53, 57 번지 일대)가 있다.

9) 한미농원자리(현 한미재단사육시험장): 여우고개 쪽에 위치하고 있던 계단식농법을 사용하였던 농원이다.

10) 웃소새 쌍느티나무: 소사본2동 115-1번지에 있는 느티나무로 경기도보호수(도나무, 1982년 10월 15일 지정) 도-5-3번이다. 소사삼거리에서 시흥시로 가는 버스 길 바로 옆에 있는데 예전에는 두 그루였으나 서남쪽에 있던 나무가 원인 모르게 죽어 이제는 한 그루만이 남아 있다. 이 나무의 수령은 800여년 정도이고 높이는 30m이며 둘레는 4.3m, 면적은 24m²이다.

이 나무에 얹힌 일화가 있다. 두 그루 모두 어느 쪽이든 봄철에 움이 틀때 나무 잎이 위에서 먼저 피어 아래로 내려오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비도 많이 왔으나 반대인 경우는 흉년이 들고 비가 적게 내려 가뭄이 들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살아 있는 동쪽에서 먼저 움이 트면 풍년이 들었으나 죽어 버린 나무에서 먼저 움이 트면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 이 나무의 형태는 동물이 앓아 있는 형상이며 주민의 화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있다.

11) 세종병원 앞 은행나무(소사동 100-1번지 소재): 경기도보호수(도나무, 1982년 10월 15일 지정) 도-5-2번으로 1,000년을 넘는 수령에 높이 30m, 둘레 5m, 면적은 7m²이다.

12) 웃소새 대동산신제: 홀수해가 든 격년으로 대동산신제를 지내는데 제사날은 음력 시월 초사홀날을 원칙으로 한다. 대동산신제는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 및 풍요를 기원하며 잡귀를 몰아내 각종 액을 면해 줄 것을 소원하는 지극히 순박한 우리 지방 조상들의 전통 민속행사이다.

제사날에는 마을 입구와 끝에 마을을 수호하는 장승을 세우고 전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대동 공동우물을 청소한다. 또한 추수한 곡식으로 떡을 만들고 모든 과일을 모아 마을 뒷산인 도당산에서 제를 올린다.

절차는 안반고사, 시제, 부정풀이, 조라술 모시기, 장승고사, 우물고사, 3당주 제배, 초현, 축문, 아현, 종현, 첨잔 순으로 진행된다.

● 자료에 보이는 소사

—(전략) 다음으로 가본 데가 소래저수지다. 경인선으로 가 소새(素砂)서 나려 마침 빼스가 잇으면 대야리(大也里)까지 타고, 없으면 장찬십리길을 걸어야 하는데다 얇은 술밭이 많고 갚은데는 돌로 쌓은 둔덕에 앉게 됨으로 바닥도 좋지 못하고 사람도 너머 뜨거워진다. 그러나 가끔 손아귀가 번 봉어를 낚을 수있는 맛에 공일날 같은 때는 무려 삼사십명은 모히는데다. —(후략)

〈 이태준 저 『돌다리』 중 無緣 4쪽, 1943년 박문서관(소화 18년 12월 15일) 〉

● 다른 지역의 소사

평택시 평택동 소사벌: 1597년 왜군이 전라도 남원·전주를 짓밟고 충청도 공주를 휩쓸 후 서울을 함락하기 위해 평택(당시는 진위) 소사벌로 진군하려는 것을 조명연합군이 신속하게 원숭이를 이용한 기상천외한 작전으로 반격을 하였다고 한다. 이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육지전에서 최대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일명 '소사벌 대회전'이라고 한다.

2. 성주산(심곡본동·심곡본1동) 일대

1) 성주산(일명 와우산)

부천시 남단에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부천의 주산이다. 성주산(聖柱山)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와우산 또는 댁골산이라고 불렀다. 특히 하우고개가 있는 부분은 1918년 발행된 『조선지지자료』에는 화오현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성주산은 부천시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시흥시 대야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1917년에 측량한 지도에는 聖主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발 200미터이다. 성주산이라고 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일제 때 도서관 심곡분관 자리에 1938년 일왕에게 참배를 강요하던 소사면 신사

가 세워졌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인들에 의해 붙여진 산 이름이 아닌가 한다.

성주산은 일명 와우산(臥牛山)이라 한다.

이 산의 형세는, 현재는 시 청사나 멀리 고층건물에서 관찰해야 볼 수 있지만 도시화가 되기 이전인 1960년대 까지만 하여도 벌막 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소가 앉아 있는 형세를 한 눈에 보아 알 수가 있었다.

즉 지금의 상수도 탱크가 있는 그 언저리의 돌출부인 성무정(활터) 쪽 언덕, 즉 서울신학대학이 있는 뒷편의 돌출부는 마치 소가 앉다리를 굽히고 있는 형상임을 엿볼 수 있고, 주봉인 산정상이 소의 엉덩이 부분이 된 형태이며, 여기서 약간 동쪽에 하우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가 잘라진 곳은 소의 허리부분에 해당된다. 이곳에는 성주산 약수터가 있다.

한편 부천풀장을 찌르듯 돌출된 능선이 바로 소가 엎드려 있을 때 뒷다리를 굽힌 현상이다.

서쪽으로 길게 뻗쳐 있는 능선 줄기는 소의 꼬리로 보아 소가 누워있는 형태이다.

한편 깊은구지 쪽의 성주산은 댓글산으로 불렸다. 이곳의 서쪽에 1960년대까지 암자가 있었는데 산동네로 불리고 있다.

2) 심곡본동(마을이 있는 위치에 따라 붙여진 명칭)

심곡본동은 부천군이 탄생하기 이전까지는 계속하여 부평에 속해 발전해 왔다. 부평도호부, 이후의 부평군 때에는 석천면(돌내면이라고도 한다. 돌내는 '냇물이 돌아드는 곳'을 이르는데 한자로 표기하면서 석천으로 표기되었다. 원래는 回川으로 표기해야 맞다) 심곡리 지역이었고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소사역이 설치된 곳이다. 1914년 부천군이 신설되어 계남면(부평의 주산인 '계양산 남쪽에 있다'고 하여 일제에 의해 붙여진 명칭)심곡리가 되었다가 계남면이 소사면·소사읍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소속명이 바뀌었다. 1973년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되자 제85호에 의하여 심곡 2.4.5.8.9리 일원이 심곡1동, 심곡1.3.6.7리 일원이 심곡2동으로 되었다.

1983년 9월 1일 시 조례 제546호에 의하여 동 관할구역 변경으로 심

곡2동에서 17개 통이 심곡3동으로 분동되고, 1991년 심곡1동에서 심곡본동이 분동되고, 심곡본동은 심곡본2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다시 심곡본동으로 불리고 있으며, 심곡1동은 심곡본1동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6년 10월 말 현재 심곡본동은 7,517가구에 22,028명이 살고 있고, 심곡본1동은 7,430가구에 21,910명이 살고 있다. 소사구 심곡본·본1동은 1.71km², 14,947가구에 43,938명이 살고 있다.

3) 깊은구지(심곡본1동, 예전은 심곡9리)

깊은구지는 지금의 심곡본1동 605번지(15통 2반) 해묵은 느티나무(이 느티나무는 도당굿을 지내던 나무로 손자나무에 해당한다)가 있는 곳인데 이 길목은 그 옛날 마니골(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수동)로 넘어 가는 길이었다. 이곳 토양은 척박하고 토질이 나빠 조, 콩, 메밀 등을 주로 심었다고 한다.

이 길 일대가 할아버지나무와 할머니나무 그리고 손자나무가 있어 골이 깊고 나무가 울창하여 붙여진 것으로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이른다.

성주산 줄기 따라 남북으로 있는 고갯길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 고개들은 하나 같이 부천에서 시흥시와 인천시를 잇는 구실을 하고 있다. 가장 동쪽에 있는 소사동에서 시흥시 대야동으로 있는 고개를 여우고개라 한다.

그 다음 고개가 하우고개이고, 인천과 접해있는 고개를 마니고개라 한다. '마니'는 '머리'라는 뜻이므로 마니고개는 머리고개라고 할 수 있다.

심곡본1동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47호 궁시장 인간문화재 김장환이 살았었고, 지금은 기능보유자 김박영과 김장환의 아들 기홍, 손자 동진이 뒤를 잇고 있다.

4)하우고개: 하우고개라 부르게 된 데에는 산의 형태인 와우에서 유래된 것이란 설과 의성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그리고 산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에서 유래되었다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처음의 경우는 이 산이 臥牛山이기 때문에 이 산을 넘는 고개도 한자로 罗 표기하였다. 이를 우리 말로 풀이해 와우고개라 하였다가 와우가 하우로 변해 하우고개로 불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두번째 경우는 옛날에는 시홍 뱀내장에서 계양 황어장으로 닷새장을 오가는 장사꾼들이 주로 이 고개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 무렵에는 행인들을 터는 도둑떼가 득실거렸다고 하는데 장사꾼들은 그들이 무섭지만 이 고개 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이 고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돌뱅이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 밑 주막에 모여 떼 지어 고개를 넘었으며, 언제 어디서 도둑떼들의 기습이 있을지 몰라 사람과 소는 가파른 길을 바쁘게 걷다보니 모두가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찼다. 강행군을 하여 고개마루에 올라서면 안도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절로 나오게 된다. 이 때 나오는 '하우하우'하는 숨소리의 음을 따 하우고개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세번째 경우는 조선지지자료에 이 고개를 화오고개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에서 이 산에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 아닌가 하나 자세히는 알 수 없다.

5)여우고개

여우고개는 한자로 여우고개라 한 것으로 보아 산의 형세가 소가 누어 있는 모양이므로 소와 같다하여 如牛고개라 했다는 설과 여우는 여위다 하여 변화된 것으로 보아 여원고개 즉 좁고 작은 고개라는 뜻도 있는 것 같다. 이 고개는 狐峴(호현)이라 한다. 이는 이곳에 나무가 많고 후미진 곳이어서 여우가 많이 출현하였다 하여 붙여진 것으로 본다. 소사 지역의 촌로들 중에서도 여우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고, 도로가 형성되기 전 이곳의 지형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설이라고 할 수 있다.

6) 안매: 심곡본1동 성주기도원 부근.

7) 검디(듸): 부천남부경찰서 뒤 부근.

8) 솔안말: 송내1동 우성아파트 부근에 있던 솔안말과 같이 송내2동

부천관광호텔 뒤 한양아파트 부근도 예전에는 소나무가 우거져 솔안말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9) 도당나무와 마을번영축제: 추수가 끝나는 10월 초 당제를 지냈다. 이 때는 생육을 제물로 바쳤다. 이유는 '옛날에 아무개 성을 가진 조상 중에 하나가 성주산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데 호랑이가 머리 유골만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 뒤로 호랑이에게 바치는 제물로 생육을 당제상에 올렸다고 한다. 도당굿을 행하던 당집은 소림사 근방 626번지에 있었으나 언제 헐린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도당굿을 행하기 전에 까마죽나무와 참나무로 장승을 만들어 동쪽과 남쪽에 세워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당나무 세 그루가 있었으나 현재는 손자나무만 남아 있다. 할아버지나 무는 깊은구지로 들어가는 곳에 있던 나무로 현재는 화재와 벼락으로 인해 볼골만이 남아 있다. 이 나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예전에 이 나무 주변에 연립주택을 지으려던 김아무개씨가 청년을 시켜서 자신의 땅속으로 난 이 나무의 우람한 가지를 잘랐다고 한다. 그 뒤 가지를 자른 그 청년이 횡사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전해왔다. 할머니 나무는 정명고 초입에 있었으나 도시계획으로 인해 잘리어졌다.

'지킴이'나무라고 불리는 손자 나무는 정명고 초입 시장 옆에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철책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매년 시월에 마을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마을번영축제'를 지내고 있다. 이러한 축제는 도당굿의 변형된 형태이다.

10) 약공장(유한양행 자리, 예전 심곡10리): 현재 태경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는 1926년 12월 10일 유일한 박사가 세운 유한양행 공장이 있던 곳으로 약공장으로 불린다. 유한양행이 떠난 뒤에는 '대지'의 작가 펄벅의 '펄벅재단'이 이곳에 있었다.

11) 육각정 자리: 1983년 부천시립도서관 심곡분관이 기공되면서 육각정은 헐렸다. 육각정이 있기 이전에는 일제가 1938년 이곳에 소사면 신사를 지어 우리 지역사람들에게 참배를 강요하였다. 신사는 해방과 함께 헐리고 그 자리에 육각정이 세워진 것이다. 이곳에서 보면 부천시가

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아래마을을 예전에 심곡5리라고 불렀다.

- 12) 창골: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13) 든전물: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14) 산뒤미태: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15) 송전: 일제 때 불리던 이름.
- 16) 간비: 일제 때 불리던 이름.

3. 심곡1·2·3동 일대

심곡1·2·3동은 원미구에 속한다. 심곡이 토박이 말로 깊은구지를 나타낸 한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꼴짜기 아닌 허허벌판 마을에 심곡이 붙는 것은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이들 지역에도 전해지고 있는 고유한 명칭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곡1동은 벌막, 심곡2동은 진말, 심곡3동은 먹적골이라 부른다.

심곡2동은 1996년 10월 말 현재 0.59km^2 , 5,532가구에 14,981명이 살고 있고, 심곡3동은 1992년 심곡3동과 심곡진동으로 분동되었다가 심곡진동은 심곡1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심곡1동은 0.47km^2 , 5,152가구에 14,968명이, 심곡3동은 0.43 km^2 , 5,698가구에 16,891명이 살고 있다.

원미구 심곡1·2·3동은 1.49km^2 , 16,382가구에 46,840명이 살고 있다.

1) 진말(심곡2동, 예전에는 벌막과 함께 심곡7리)

다른 지역에도 진말이란 지명은 많이 보이는데 유래는 군대가 주둔한 곳, 땅이 질어서 붙여진 곳, 위 두 가지를 다 포함하여 붙여진 곳 등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부천의 경우는 세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일설에 의하면 이 지대가 논과 밭으로 형성되어 사실상 비가 좀 와도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땅이 무척 질었다. 전해오는 말에 '부천사람은 마누라없이는 살아도 장화없이는 못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비가 온 후의 부천지역 실정을 적절히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진말을 한자 표기에 있어 陣村이라 한다. 진은 발음 그대로 陣이고 村을 순수 우리말로 마을인데 마을을 줄여서 말로 불러 진말이라 했다는 설이다. 이 명칭은 전쟁과 관계가 있는 명칭으로 동학전쟁 때 이곳에 진을 쳤다고도 한다.

2) 먹적골(심곡3동, 예전 심곡1리)

조선시대 牧自里 즉 牧自골으로 불리던 것이 언제부터 먹적골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곳 촌로들의 말에 의하면 목자골이 부르기 쉽게 먹적골이 된 것은 1930년대라 한다.

성주산 능선이 마을 뒤로 뻗어 내려가 사람의 '목젖' 모양의 형상을 이루어 '목젖골'이라 부르다가 후에 먹적골로 불렀다고 한다.

먹적골은 김포선을 중심으로 중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도로가 포장되기 이전에는 이 철로를 따라 시내로 다니곤 하였다.

먹적골에는 '곁절리(현 춘의동)에 가서 (곡식을) 거두어서 소사에 가서 소를 사서 장말(현 중동)에 가서 잡아서 조마루(현 원미동)에 가서 줄여서 진말(현 심곡2동)에 가서 지져서 농장(현 중동에 있던 일본인 농장)에서 나누어 먹적골에 가서 먹었다'라는 얘기가 전하고 있다

3) 벌막(심곡1동, 일명 벌말, 예전 심곡7리):

기록에 萬石坪 즉 만석이 뜰로 나오는 곳이다. 한자로는 坪村, 벌판마을을 줄여 벌말이라 하였다는 설과 군대가 주둔하여 막을 쳤다해서 伐幕이란 설이 있으나 지형적으로 보아 허허벌판에 마을이 있어 붙여졌다고 한 경우가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80여년 전 벌판 대로 분기점에 집이 생겨서 주막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에 '벌판에 있는 주막'이라 하여 벌막이라 불렀다고 한다.

4) 김목벌: 심곡동 22.40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로 현재는 심곡진동으로 중앙국민학교가 들어선 자리이다. 이곳에 뿌리를 삶아 먹는 풀의 일종인 김목이 많이 돋아 났다는 데에서 그 명칭이 붙여졌다 한다.

5) 모래논: 심곡동 55번지 일대의 논을 이른다.

6) 새우지논: 심곡동 200, 300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이다. 이곳에 잡초의 일종인 새우지방(새우난초)이 많이 돋아났다는 데에서 유래한

다.

7) 홍천교: 예전 부천자동차학원 앞에 있던 다리를 이르는 말로 이 다리는 약대로 가는 심곡천 위에 놓여 있었다.

4. 원미산(원미동, 역곡동) 일대

원미산은 멀미산, 멀뫼, 장대산, 둔대산(일명 춘덕산), 벼락산, 포대산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부천의 주산 중의 하나이다.

원미산이라 불리게 된것은 옛날 부평부 관아(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산동 소재)의 동헌에서 이 산을 보면 정통으로 바라보이는 데 아침 해돋이 때의 산세는 그지없이 선연하고 아름다우며 해질녘 노을에 반사된 그 푸르름은 단아하기가 비길데 없었다. 더욱이 부천벌을 굽어 감싸는 듯한 정경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멀리서 바라본 산 풍경에 누구나 감탄했다 한다. 이에 도호부사가 산의 이름을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부사가 그 즉시 산 이름을 遠美山이라 지어 오늘날까지 원미산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18년에 나온 『조선지지자료』에는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산'이 아니고 '멀리 보이는 눈썹의 형태를 하고 있는 산'이란 뜻으로 遠眉山이라 표기되어 있다.

원미산에는 세개의 봉우리가 있다.

주봉은 북동쪽에 위치하여 將岱峰(장대봉) 또는 屯岱山(둔대산)이라 부르고 있고, 소명여중고와 성가병원 후면에 위치한 봉우리가 선연하고 아름답다는 멀미봉 즉 멀미산이다. 멀미봉 북쪽에 있는 뾰족산이 벼락산이다.

장대봉을 중심으로 북쪽에 두개의 골짜기가 있다. 왼쪽 골짜기를 작은 망골이라 하고 오른쪽을 큰 망골이라 부른다. 이 골짜기를 따라 북쪽으로 개울이 있다. 이 개울을 비릿내 또는 비리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장대봉을 중심으로 큰 전투가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둔대란 글자 그대로 군사가 주둔했다는 뜻이다. 비릿내란 명칭의 유래는 큰 망골과 작은 망

골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술한 인명피해로 많은 피가 흘러내려 오래도록 피비린내가 났다 해서 붙여진 것이다.

원미산은 지리적으로 부평관아와 가깝게 위치한 계양산, 원미산 남쪽에 위치한 성주산의 줄기따라 버티고 있는 소래산, 그리고 행주산성과의 중간에 위치하여 부평벌과 김포벌 그리고 부천벌을 한 눈에 굽어 볼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임을 알 수가 있다. 원미산 보다 더 먼저 기록에 나오는 또 다른 이름인 둔대산이란 명칭이 이를 반영한다. 그에 대한 고증은 벌옹절리 '죽산 박씨 대동보'와 '진미록'에서 찾을 수 있다.

죽산 박씨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조선 때의 명장이며 충신인 김종서의 사위 계공랑 박금손의 후손인 승의랑 박칠정 때부터이다. 그는 권율장군 휘하에서 싸웠으며 그의 아들인 박진은 의병으로 둔대산에서 싸웠다. 기록에 의하면 진이 병사와 노복 1백명과 이웃 마을 장정 100명 등 200명으로 읍력 9월 9일 둔대산에 진을 쳤다. 이 때 계양산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이 마을을 약탈한다는 파발이 와 돌격하여 왜군 10여 명을 죽이고 주력부대를 30-40리나 퇴각시켰다고 적고 있다.

현재 묘역 입구 산 기슭에는 '의병장 박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전승지였던 둔대산 입구 계암약수터(얼마 전까지는 산수회 약수터라 불렸으나 박진의 구국의지와 향토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해 명칭을 박진의 아호인 계암을 따서 고쳤다)에는 '의병장 박진 전승비'가 세워져 있다.

원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동을 살펴보면 서쪽이 원미동, 남쪽이 소사동과 역곡동이며 동쪽은 서울과의 경계이고 북쪽은 작동·여월동·춘의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을 북쪽 지역인 작동·여월동·춘의동을 제외하고 서쪽 기슭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마루(원미1동, 朝宗里)

재개발이 한창인 예전 원미주공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다. 조종리라는 마을 이름은 1973년 부천시가 되기 이전까지 불리워졌다. 그러다가 부천시가 되면서 마을이 있는 위치가 원미산 아래에 있다고 하여 400여년 동안 사용하던 것을 버리고 원미동이 되어버렸다.

이곳에는 원래 창녕 조씨, 청주 한씨, 전주 이씨, 은진 송씨, 원주 원

씨가 주성을 이뤄 집성촌을 형성하였던 마을로 특히 조씨로 인해 조마루라 하였다고 한다. 즉 '창녕 조씨가 종가를 이룬 마을' 이었기 때문인데 '성씨 曹'가 언제부터 '아침 朝'로 바뀐지는 알 수 없다.

마루는 신라 때에 왕이 높은 곳에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데서 나온 말로 으뜸, 높은, 또는 등성이를 뜻한다. 원종동의 경우는 옛마루라고 하는데 이는 산등성이를 이른다.

석왕사와 천군사가 있는 동네는 절동네라 부른다.

예전 원미주공아파트 지나 원미로 좌측은 예전에 중앙일보 사원들이 사는 곳이어서 '사우촌'이라고 불렀다.

원미동은 1동과 2동으로 형성되어 있다. 원미1동은 0.99km², 6,144가구에 18,684명이, 원미2동은 0.51km², 5,394가구에 16,480명이 살고 있다.

2) 작밭골(作田洞, 또는 탁발골)

성가병원과 성분도수녀원이 있는 일대로 비옥한 땅에서 난 포도는 맛과 모양이 일품이었다 한다.

3) 새장터(新場基, 예전에는 사래리와 함께 벌옹절2리)

가톨릭대학교에서 부천역으로 넘어오는 곳에 있던 몇 호 안되는 마을로 조그마한 장이 형성되어 새터 또는 새장터라 불렀다 한다. 이곳에서는 현재 오류동 동부제강 옆에 있던 역원에 필요한 말굽 편좌를 제작하던 대장간이 있었다고 한다.

4) 먹골

새장터에서 고가도로를 지나 사래리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멀미산이 북쪽으로 구불구불 굽이쳐서 동북쪽으로 길게 등이 뻗어나간 형태로 봄 큰 짐승의 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먹골이라 하는데 이 안에 가톨릭대학 성심교정이 있다.

가톨릭대학 성심교정과 부천동초등학교 사이의 골짜기를 원미골이라고 한다.

5) 사래리(역곡2동, 일명 새를, 沙下里, 士里月, 예전 벌옹절2리)

먹골 어귀 오른쪽에 있는 마을로 지금은 역곡2동 삼신아파트가 들어

섰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권율장군 휘하에 있던 박철정이 광주군 번송에서 이곳에 와 '선비가 왔다'해서 士來里라 불렀다 한다. 1920년대에 나온 지도에는 士里月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사래리 뒷산에서는 사래리 애향회 주관으로 매년 음력 시월 춘덕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이 산을 새를산(새털산)이라고 부른다.

한편 옛날 이곳에 유명한 선생이 글을 가르치고 있어서 각지에서 선비(士)들이 모여들어(來) 왕래가 빈번하였다 하여 사래리로 불렸다고도 한다.

역곡2동은 1.10km^2 , 6,064가구에 18,005명이 살고 있다.

6) 장구들: 새를 앞에 있던 들로 현재 역곡역 부근의 철도변에 해당한다.

7) 춘교들: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8) 휴곡산: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9) 백토현산(白土峴山): 사래리 뒷산으로 이곳에서 백토가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여기에서 나온 백토를 캐서 쌀을 빻는데 넣으면 쌀이 하얗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곳의 백토를 캐 서울과 부천으로 가져가 그릇을 만들기도 하였다고 한다.

10) 벌옹절리(역곡1동)

역곡동 안동네로 일명 벌골 또는 적골이라고 부른다. 절골이라 부르게 된 것은 옛날 이곳에 봉옹사(蜂應寺)란 절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설(蜂은 우리 말로 '벌'이고 寺는 우리말로 절)과 왜군의 침략에 '應'하여 왜군을 쳤기(伐) 때문에 붙여진 것이란 설이 있다. 이곳 뒷산인 둔대산(현재는 춘덕산이라 부른다)에서 임진왜란 때 사래리에 사는 박진이 의병 200여명을 거느리고 전투를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자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이 마을의 지형이 벌(蜂)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봉옹절리라고 하여 이것이 벌옹절리로 변했다고 한다. 역곡1동은 1.13km^2 , 5,552가구에 17,120명이 살고 있다.

11) 춘덕산(예전 명칭은 둔대산)

의병장 박진과 휘하 의병들이 싸웠던 산으로 높이는 106.7m이다. 이

산은 원래 의병이 주둔하였기 때문에 둔대산이라고 하였다가 의병이 주둔하여 덕을 입었다 해서 둔덕산이 되었다. 그 후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둔덕산이 춘덕산으로 바뀐 것이다.

- 12) 안산: 춘덕산 왼쪽에 있는 야산.
- 13) 알뫼부리산: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14) 세제골: 춘덕산 앞에 있는 야산.
- 15) 뱀골과 둔덕골

둔대산 남쪽 기슭에는 여러 개의 골이 있는데 서쪽 첫번째 있는 골짜기에 뱀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뱀골이다. 뱀골 앞의 논이 있는 지역은 사곡뜰이라 한다. 이곳 초입에 1996년 9월 역곡초등학교가 세워졌다.

약수터로 올라가는 두번째 골짜기가 둔덕골로 임진왜란 때 사람들이 둔을 치고 터를 잡았기 때문이라 하며 이 아래 마을을 일명 성하촌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 16) 감베들: 벌옹절리 안동네 앞에 있는 논을 이르는 말이다.
- 17) 소탈뫼(所脫山, 일명 서탈미)와 능안
신체의 사타구니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마을로 사태골 또는 서탈이라고도 하며 위치는 건너말 뒷산이다.
이 골 동쪽 안으로 번번한 땅이 능안이다. 이곳에는 죽산박씨 철정 이하 후손들의 묘가 있다.
능안 입구에 의병장 박진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 18) 큰말: 현재 역곡1동에 속한 안동네, 둔덕골, 춘덕산 지역으로 매년 음력 시월에 길일을 택해 춘덕산수회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다.
- 19) 능골: 건너말 뒷산에 있는 죽산 박씨 묘역 지역으로 '큰 능안'이라고 한다.
- 20) 건너말: 안동네 건너편에 있는 능골 앞.
- 21) 역골(驛谷, 예전 벌옹절3리)

예전에 경기도 농촌진흥원 농사시험장 사택이 있었던 곳을 역골이라 불렀다. 이 지역에는 옛날 常奴가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1899년 경인철도 부설시 이곳에 간이역을 설치하여 역골이라 불렸다고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역이 생긴 것은 전에 신양촌 입구에 있던 역이 현재 역곡역으로 옮기면서 부터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될 때의 오류역은 교통안전진홍공단 앞에 있었다.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30리에 하나씩 역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40리인 경우도 있다.

역곡은 역원에 가까이 있던 계곡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농사시험장 사택이 있던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538개의 역을 두고 이를 40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찰방을 두었는데 찰방이 주재하는 역을 찰방역이라 불렀다.

경기도에는 수원, 양주, 장단, 인천역 등이 찰방역이었으며, 역곡은 시흥시 관림동에 있던 중림역의 속역이었다.

22) 독쟁이 고개(篤亭峴): 유한공고에서 서울시 오류동으로 넘어가는 경인국도에 속한 고개로 일명 독정고개라 한다.

23) 갈가산(葛加山): 힘이 많아 붙여진 명칭으로 생각되는데 유한공전 앞산으로 일명 갈가뫼라고도 한다.

한편 이곳에서 가까운 온수동에 갈매산이 있는데 이곳은 골짜기가 습하고 옛날에 갈대가 많아 붙여진 명칭이라 한다.

24) 큰 망골, 작은 망골과 비린내

장대봉 북쪽에 세개의 큰 골이 있다. 북녘 기슭 동쪽에 위치한 첫번째와 두번째 골짜기가 큰 망골과 작은 망골이다. 큰 망골은 전쟁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고 작은 망골은 작게 져서 붙여진 명칭이라 한다.

이 때 흘린 피가 내를 이루었으며 피비랫내가 진동하여 비릿내천이라 하였다 한다.

25) 고비골(고사리골)

당 아래 도로변에 도축장과 소신여객 차고가 있는 곳으로 고비와 고사리가 잘자란 습한 지역이다.

26) 할배당과 할미당

고비골에서 부일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산 등성이에 서낭당이 하나 있고, 이곳에서 마주 보이는 남쪽 산마루에 또 하나의 서낭당이 있다. 부일초등학교 북쪽에 있는 서낭당을 할배당이라 하고 마주 보고 있는 것

을 할미당이라 불렀다.

이곳에 매년 2회 도당제를 지냈다. 원미산 서쪽 끝 봉우리(현 원미동 산 5번지)에 있던 노송나무에 도당할아버지신이 모셔져 있었고, 원미산 중앙 끝 봉우리(현 원미동 산 15-24번지)에 있던 박달나무에 도당할머니신이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장승이 있었다. 동방에는, 현 원미동 29-10번지에는 수령이 약 250년 쯤 되었던 엄나무가 있고 남방에는, 현 원미동 153번지에는 수령이 약 200년 쯤 되었던 가죽나무 세 그루중 중앙에 있던 나무가 있으며 서방에는, 현 원미동 58-2번지에는 수령이 약 300년 쯤 되었던 참나무(상수리나무)가 있었다.

일년에 봄(음력 3월 1일에 길일을 택함)과 가을(음력 10월 1일 길일을 택함)로 마을의 무사안일과 대풍을 기원하는 도당제를 거행한 곳이다.

도당제에 임하게 되면 이장은 동네유지들의 뜻을 물어 마을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골라 앓은 당주 한사람과 선 당주 두 사람을 선발한다. 이들은 도당제에 필요한 물자와 제수를 준비하여 도당제를 올리는데 앓은 당주는 헌관이 된다.

이렇게 이어져 오던 도당제가 단절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마을이 도시화되면서 당나무들을 베어 버렸기 때문이다.

5. 노고산(할미산: 범박동, 계수동, 옥길동, 괴안동) 일대

큰 내가 '한내', 큰 밭이 '한밭'이 되듯이 큰 끼는 '한메'가 된다. 이것이 '할매', '할미'로 발음되어 '할미산'이 되고, 이를 한자로 老姑山이 된 것이다. 즉 한메 > 한미산 > 할미산 > 노고산으로 바뀐 것이다. 노고산(일명 老女區山으로 포기하여 토박이말로 할미산이라고 한다)은 표고 153m의 잔구로 이곳을 중심하여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소사동 등이 주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산의 명칭은 신양촌이 들어서면서 露求山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는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경우로 사실과 부합하지는 않는다. 청주 한씨 대동보에는 이 산을 '청주 한씨가 터를 잡

은 산이다'해서 韓基山이라 하였는데 이 명칭 보다 더 빠른 명칭도 있을 것이나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노고산를 중심으로 하여 작은 산들이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자연 마을(범박동, 계수동, 옥길동, 괴안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범박동

1957년말 신양촌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박골로 알려진 마을이다. 범박골은 범씨와 죽산 박씨가 정착하여 붙여진 명칭이라 하나 신빙성이 약하고 마을 형태 때문에 호랑이(범)와 관련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즉 노고산에서 마을을 내려다 보면 삼태기 모양을 하여 마치 호랑이 앞 발자국 형태와 같아 붙여진 명칭이다. 범과 박씨가 연결되어 있는 범박동의 박씨는 부천에 정착한 죽산 박씨 박철정의 손자인 박문필로 그는 인제현 감을 지내고 정3품 통정대부에 올랐다. 그리고 범박동 산 28번지 공속 골에는 문필의 조카로 인근 중림역의 찰방(각 도의 역참 일을 맡아보던 외직. 종6품)을 지낸 박기남(통훈대부)의 묘가 있다. 그리고 계수동 뒷 산을 咸朴山(산 28번지와 29번지)이라 한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범박동은 부평군 때에 옥산면에 속해 발전해 오다 1914년 부천군 탄생과 함께 계남면에 속한 후 계남면이 소사면·소사읍으로 바뀜에 따라 소속명을 달리했다. 1973년 부천시가 되자 범박리가 되었는데 이 때 신양촌의 인구가 시승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83년 2월 15일 계수동 일부와 옥길동 일부가 편입되자 행정동명이 되었다.

범박동에는 죽산 박씨 이외에도 파평 윤씨와 여홍 민씨가 정착하여 살았는데 파평 윤씨의 선산은 현 범박파출소 뒷산이었으나 신양촌 유입으로 인해 시흥시 미산동으로 옮겼다. 파출소 뒷산을 '신도비'라 부르는데 아마 신도비가 있지 않았나 한다.

계수동이 포함된 행정동으로서의 범박동은 2.29km^2 , 3,185가구에 9,263명이 살고 있다.

(1) 안산(案山): 범박동 130-137번지 일대로 노고산(할미산) 동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 (2) 공세동산(貢稅洞山):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3) 숙공산(肅公山): 범박동 산 62-3번지 일대로 숫골과 공술흘의 합성어. 일명 숙골로 느티나무 뒤에 있는 산과 묘가 있는 공술흘을 말한다.
- (4) 삼태봉: 범박동파출소 옆산을 일컫는다. 파출소를 중심으로 뒷산과 옆산 그리고 박태선 장로가 살았던 모리타라는 왜인집 뒤의 세봉우리를 합쳐서 부른 명칭이 아닌가 한다.
- (5) 망현(望峴): 숫골 옆 고개로 외지인의 출입을 감시하였기 때문에 부른 이름이다.
- (6) 불당고개(佛堂峴): 범박초등학교에서 범박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7) 양지마을: 범박동 59번지 4통지역으로 이 지역은 일조량이 10시 간되는 별이 잘 드는 따뜻한 마을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 (8) 나사렛마을: 범박동 50번지 일대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태어난 마을에서 유래하여 신앙촌이 들어서면서 붙여진 명칭이다.
- (9) 배못탱이와 암우들: 동네 앞 느티나무가 있는 곳을 배못탱이라 하며 이 주위에 있는 논을 뜰이라 하였다. 지금은 범박굴 앞뜰이라 부른다.

을축년 대홍수 때 서울시 항도에서부터 이곳에 바닷물이 역류하여 배를 이 느티나무에 맺다고 한다. 시흥시 괴림동 솟두르지에서 보면 물이 많이 찬 동네임을 알 수 있었다 한다.

망현과 느티나무가 만나는 곳에 공동우물(100번지)이 있다.

2) 계수동

계수동은 고강동과 함께 부천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청주 한씨의 정착 시기는 고강동 보다 50여 년이 늦은 500여년 전인 세조 때이다.

이곳은 백제시대 미추홀에 속했다가 고구려 때 매소흘현에 속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소성현에 속했다.

이후 1914년 부천군 소래면이 되기 전까지는 인천부의 동면으로 발전해오다 동면이 황등천면으로 바뀌고, 1914년 부천군이 탄생하면서 부천군 소래면 계수리가 되었다가 1973년 부천군 소사읍이 부천시가 될 때 시흥군 소래면으로 갔다가 1983년 옥길리 일부와 함께 계수리 일부가 부천시에 편입되어 범박동에 속하였다.

계수동 청주 한씨의 묘역이 있는 곳을 咸朴山(함박산)이라 하며 이곳에는 한명회의 동생인 이양공 한명진의 아들 청평군 한언과 후손인 청천군 한준의 신도비가 남아 있다. 이 신도비들은 부천시 향토유적으로 지정 보호될 것이다.

계수동은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작은 땅이름의 유래들이 많이 남아 있다.

(1) 웃계일: 범박동 13통, 14통, 15통 지역으로 자연마을이었을 때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시흥시 계수동에는 아래와 구석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아랫계일과 구석계일이 있다. 이외에도 시흥시 쪽에는 덕석골, 안골, 건진말, 구미 등이 지금도 불리고 있다.

계수동은 자연마을인 '계일'(이 지명은 한언과 관계있다. 한언이 중국 사신으로 가서 그곳에서 병사하였으므로 제일가는 신하다 하여 제일이라고 하였다가 이것이 다시 계일이 되었다고 한다)과 '수로동'이 합쳐진 명칭이다.

(2) 계수리고개: 신양촌에서 넘어오는 고개를 계수리고개라 하는데 이곳 오른쪽에 있는 정원연립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중요무형문화재 58호 줄타기 기능보유자였던 김영철이 살다가 1988년 타계하였다.

(3) 계일고개(또는 길고개): 계수동에서 옥길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길고개와 장승백이고개가 잇달아 있다.

3) 옥길동

옥길동은 일제 때 '옥련리'와 '두길리'가 합쳐져 생긴 명칭으로 이곳에는 이외에도 함박리와 식골리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이 네 마을이 합

쳐 옥길동이 된 것이다.

옥련동은 경기화학에서 서울시 구로구 항동과 연접하여 있는 동네로 경기화학 부근의 옥돌무지와 연꽃 방죽이 있는 마을이여서 옥련동이라 하였다. 이곳에는 전주 이씨 양녕대군파가 먼저 들어오고 이어서 세조 때 선약장군을 지낸 또 다른 전주 이씨가 들어왔으며, 250여년 전에 의령 남씨 창명공파가 정착하였다.

행정동으로는 역곡3동에 속한다.

(1) 옥련동: 마을 좌측에 앞굴과 건지산(큰 건지산, 작은 건지산이 있다. 이 산에 옥녀봉이 있다)이 있고, 건너편에는 원래 마을이 형성되었다가 몰락한 망굴이 있다. 옥길동이 역곡3동에 속한 것은 교통편의와 교육여건에 의해서이며 계수동과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함박리: 옥길동의 또 하나의 마을인 함박은 광명시에 있는 두길리에서 옮겨 산 진주 하씨와 성산 여씨 등이 범박동 11통 지역에 속해 63호가 살고 있다. 이 마을의 뒤 즉 계수동 뒷산이 함박산이어서 함박이라 한 것 같다. 이 지역은 옥길리 108-1번지 일대이다. 한편 마을의 형태가 함처럼 생겨서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3) 사태말(沙汰 말): 함박리 지역에 있는 자연마을 명칭으로 옥길동 685번지 일대이다. 사태말의 유래는 사태가 빈번하여 붙여진 명칭이라 한다. 어느 해 가뭄이 몹시 들어 이곳에 우물을 팠는데 스물 다섯자 가량을 파니 그 안에서 사기 그릇 조각이 나왔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이 마을의 형성이 오래 되었음을 알게 한다. 이 바가지 우물에 돌맹이를 놓고 물을 떴다고 한다.

(4) 장승백이 고개: 계수동에서 오는 우측에 마을을 알리고 마을사람의 안녕을 빙 장승이 있어서 이 고개를 장승백이 고개라 불렀고, 함박리와 사태말 사이를 장승백이골이라고 불렀다.

(5) 장고개: 소래면 당시 面도로로, 오류동으로 장을 보러 갈 때 넘어야 하는 고개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6) 원남터: 고을 원님이 낳은 터라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7) 계리월: 경기화학 부근으로 닭이 아름다운 달을 보고 울어서 붙여졌다 한다.

(8) 호랑바위산: 경기화학 뒤산을 이른다. 그러나 지금은 파 해쳐졌다.

(9) 터진목: 함박리에서 옥련리로 가는 지역은 범박동 신양촌에서 물이 내려 오면 쉽게 터졌다 해서 터진목이라 불렀다고 한다.

(10) 웃골(부굴골): 장승백이 고개와 함박리 사이의 골짜기를 이른다.

4) 괴안동

괴안동은 구로구 오류동과 접해 있는 부평군 때에는 옥산면 괴안리 지역으로 300여년을 독자적인 행정마을로 발전해 왔다. 1914년 부천군이 탄생하면서 계남면 괴안리라 하였고 계남면이 소사면, 소사읍으로 바뀜에 따라 소속명이 바뀌었다. 1973년 10월 1일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역곡동과 괴안동으로 분리되었다. 괴안동은 1989년 다시 괴안동과 역곡3동으로 분동되었다(역곡3동 주민들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 등본 등의 지번은 괴안동으로 나옴).

괴안동은 1.02km², 8,108가구에 26,304명이 살고 있다.

(1) 고얀리: 괴안동은 속칭 고얀리로 불리었다고 하는데 약 300여년 전 충청도 맹산골에서 목민관을 지낸 안동 권씨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원래 고얀리는 부천동여중 동편 고갯길 너머에 있었는데 웃고얀리와 가운데 고얀리, 그리고 아래 고얀리로 나눈다.

웃 고얀리(100번지 일대)는 현재 우성아파트, 청암아파트, 명문빌라 일원으로 남원 양씨가 주성을 이루고 살았던 마을이며, 가운데 고얀리(45-46번지 일대)는 행정동상 역곡3동 지역으로 현대아파트, 대현아파트, 화원연립 일원인데 파평 윤씨가 많이 살았고, 아래 고얀리(26-28번지 일대) 역시 역곡3동 지역으로 효창아파트, 삼성아파트, 공무원아파트 일원인데 전주 이씨와 안동 권씨가 주성을 이루고 살았다.

괴안동에는 해묵은 느티나무가 괴안동 97-24에 자라고 있었으나 부천시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시 성토작업으로 인해 발육이 되지 않아 말라

죽고 말았다.

이 이전 아래 고양리(가운데 마을)에는 느티나무 한그루가 있었는데 (고 하취홍씨 집 뒤에 있었으나 70여년 전에 일본 사람에게 팔았다 한다. 면적은 약 300여평 정도로 작업일수만도 100여일 걸렸다 한다) 해마다 봄이면 이곳에 음식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고사를 지냈다. 즉 '느티나무(槐木:괴목)에 안녕을 빌었기 때문에' 괴안리라 하였다.

이 괴목은 구한말 대원군이 설정할 때 잘려져 대포 바퀴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산 3번지 웃 고양리와 가운데 고양리 사이에 있는 느티나무에서는 5월 단오에 그네뛰기를 하며 놀았다고 하는데 수령은 500년 정도되었다고 한다.

해방 후에는 느티나무에 산고사를 지내지 않고 괴안동 90-1 현 삼오 유치원 뒤에 있던 소나무에 음력 10월 초하루에 지냈으며 고사 며칠 전에는 71-13에 있던 고사우물을 깨끗이 소지하였다고 한다. 이 산고사도 태풍으로 인해 소나무가 부러짐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2) 괴안국: 괴안과 관련지어 유명한 고사가 있는데 南柯一夢(남가일몽)이 그것이다. 즉 당나라 이공좌가 지은 《이문집》이란 책에 전하고 있는 이야기다. 당나라 덕종 때 순우분의 집 남쪽에는 몇 아름이나 되는 느티나무가 수십평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는데 여름 철에는 이곳에 친구들을 불러 놓고 정담을 나누곤 하였다. 어느 날 느티나무 아래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가 꿈 속에서 본 괴안국은 화려하고 대평성세의 국가로 그려져 있다. 그 괴안국은 느티나무 아래에 있던 개미의 나라를 말하는데 생시와 다름없는 생생한 꿈을 꿀 때 남가일몽이라 한다.

(3) 연화봉산(蓮花峰山): 괴안동 산 4-1, 구 괴안동사무소 뒷편 지역으로 비가 오면 가루가 흘러 냇가에 쌓여 연화봉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4) 원산(圓山, 일명 와우산): 산 29-1 지역으로 마을 앞 멀리 보이는 산, 일명 멀미산으로 예전에 이곳에서 항동 사람들과 불놀이를 하곤 했다 한다.

(5) 청어 계곡(일명 고렐, 또는 망골): 임진왜란 때 파문은 말무덤이 있었다고 전한다. 괴안동 아래골에서 항동 일대 벌판 지역까지 이른다.

(6) 청등뜰: 마을 앞 뜰.

(7) 가곡현(佳谷峴, 일명 가골고개, 또는 갓골): 청송아파트 고갯길을 이른다.

(8) 재너머: 현 괴안동파출소 앞 고갯길.

(9) 그개골: 현 조공2차아파트 일원.

(10) 샛골: 현 삼익 세라믹아파트 일원.

(11) 새장터: 현 괴안동 11통 지역으로 이곳에 있던 대장간에서 소와 말의 편좌를 만들어 현 동부제강에 있던 역원에 공급했다 한다.

(12) 바우백이: 현 대진아파트와 거산아파트 부근을 일컫는다.

(13) 삼자골: 윗괴안 남쪽에 있던 골짜기를 이른다.

6. 춘의산(춘의동) 일대

춘의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춘의동은 부평군 때는 옥산면 표절리였다가 1914년 부천군이 탄생하면서 계남면에 속하였다. 그 후 계남면이 소사면, 소사읍으로 바뀜에 따라 소속명이 바뀌었다. 1973년 부천시가 신설되면서 원미·춘의동이 되었다가 1980년 11월 1일 시 조례 제416호에 의해 분동되어 춘의동이 된 동이다.

1996년 10월말 현재 2.92 km², 6,242가구에 19,079명이 살고 있다.

춘의동에 옛 이름인 표절리는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을까?

당시의 표절리는 '節'개에 경의를 '表'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즉 예전에 춘의로 초입에 풍산 홍씨가 받은 정려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려문을 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홍씨의 절개에 경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마을이름을 表節里라 명명하였다는 것이다.

표절리는 부천시 승격 때 춘의산 아래에 있는 동네이므로 춘의동이라 불렀다. 그런데 춘의동의 '의'자는 기록에 전하는 것과는 다르다. 즉 가장 오래된 기록인 족보와 《조선지지자료》에는 '웃 衣'가 아닌 '마땅 宜'

또는 ‘생각 意’로 표기되어 있다. 물론 ‘마땅 의’나 ‘생각 의’는 뜻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옷 衣’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 동네에 양짓말이 있음에서 알 수 있듯 이곳은 ‘봄을 생각할 수 있는 동네’, 혹은 ‘마땅히 봄과 같이 따뜻한 동네’이기 때문에 춘의동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또한 산 이름도 春意(宜)山 또는 春意(宜)峰으로 표기되어야 마땅하다.

1) 춘의산

춘의산은 원미구 춘의동·도당동과 오정구 여월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언제나 따뜻한 봄과 같은 지역이어서 이렇게 불렸으며 이 산 남쪽 골짜기에는 ‘양짓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한겨울에도 따뜻한 봄과 같다’는 이 지역의 기후로 인해 붙여진 명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1910년대에 발행된 《조선지지자료》에는 春意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봄을 생각하는 산’ 혹은 ‘봄을 뜻하는 산’임을 알 수 있게 한다.

2) 매봉

춘의산 주봉을 매봉이라 했다. 그 이유는 옛날 부평관아가 있던 인천시 부평구 계산동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산세가 마치 ‘매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형상’과 같이 뾰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매’는 새 종류인 매가 아니라 산을 뜻하는 ‘뫼’보다 더 나중에 쓰인 산을 이르는 말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봉은 ‘산봉우리’를 이르는 말로도 볼 수 있다. 이 매가 한자로 표기되면서 梅, 每 또는 매를 뜻하는 응(鷹)으로 쓰인 경우도 있다.

부천의 상징새가 보라매인데 이 매봉과 연고가 있어 결정된 것 같다.

3) 와우산

춘의산을 일명 ‘와우산’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산세가 마치 ‘큰 소가

누워 있는 형상과 같다'하여 붙여진 것이다. 춘의산 서쪽 골짜기에는 '우산방죽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춘의산 정상은 6·25사변 당시 영국군이 주둔하면서 뾰족하던 정상을 평평하게 깎아 옛 모습은 찾을 수 없으나 지금도 군부대와 배수지가 자리하고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이곳은 내동에 정착한 전주 이씨 사직공 후손들의 종중산으로 시체를 지내는 곳이다.

4) 춘지봉(春址峰)

춘의산 주봉 남쪽으로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는 데 이 봉우리를 당아래 사람들은 춘지봉이라 칭했다.

뜻을 풀자면 '봄의 터'라 할 수 있다. 이 춘지봉 정상은 평평한 초원으로 되어 있어 해마다 꽃피는 봄이면 인근의 선비 유생들이 모여 詩會를 열고 부평, 김포벌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춘심을 노래하고 풍류를 즐겼다고 하며, 이 때 당아래 아낙네들은 음식을 제공해 주곤 했다고 한다. 지금은 춘지봉 정상에 철전주가 서 있는데 가끔 동네 개구장이 들이 돌로 철전주를 때리는 소리가 옛날 선비들의 詩唱을 대신하는 것 같다.

이렇게 춘의산은 봄을 상징하는 산으로 전래되어 내려온 것인데 1973년 시로 승격되면서 동명칭을 지을 때 '뜻 意' 혹은 '마땅 宜'자를 '옷 衣'자로 잘못 표기하여 지금은 春衣山, 春衣洞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고장에 계속 전래되어 온 마을 명칭의 원형을 찾아 春宜(意)山, 春宜(意)洞으로 고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당아래길

옛날 소사(역)에서 김포(비행장)로 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소사에서 벌막을 거쳐 당아래 고개를 넘어 김포로 가는 길이었다. 이 길은 일제시대 때 새로 건설한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가능했으며 사람들은 이 길을 신작로라 불렀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소사에서 조마루(현 원미동)를 거쳐 당아래 고개

를 넘어 김포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소사에서 조마루 고개까지는 좁은 논밭뚝 길과 당재를 넘어가는 좁은 오솔길이었다.

6) 당재

원미산 줄기 중 춘의동과 원미동의 경계를 이루는 서쪽으로 빼친 산줄기가 있는데 이 산줄기 끝부분에 해당되는 산등성이(지금의 춘의주공아파트 단지)를 당재 또는 도당현이라고 했다. 우리 말로 풀면 '당 고개' 혹은 '도당고개'라는 뜻이다. 이 당재에는 당나무로 섬김을 받던 노송나무가 있어 도당할아버지신이 모셔져 있었고, 해마다 3월과 10월에 도당제를 거행하곤 했었다.

이 당재를 지나갈 때는 옛날 사대부들도 말에서 내려 도보로 넘어갔다고 하며 혼례행렬이나 장례행렬은 절대 통과하지 못하고 벌막으로 돌아서 다녔다고 한다. 지금은 당나무도 당재도 다 헐리고 부천시 영세민의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로 마련된 춘의 주공아파트가 현대식 건물로 우뚝 솟아 변모해 가는 당아래 모습을 내려다 보고 있다.(자세한 것은 '원미산 편 할배당과 할미당' 참조)

7) 당아래(예전 표절2리)

당아래는 당재 넘어 있는 아랫마을이라는 뜻으로 '당아래'라고 했으며 당아래는 양지말, 가운데 당아래, 너머 당아래라고 하는 3개의 촌락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당아래를 혹 당하리라고 표기한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표기이다.

(1) 양지말

양지말은 춘지봉 동남쪽 골짜기로 마치 춘지봉이 삼태기같이 감싸고 있는 마을로서(춘의동 105번지 일대) 이 마을은 춘지봉이 한겨울에도 북풍한설을 막아주고, 양지가 발라 언제나 봄같이 온화하고 따뜻한 마을이다.

그래서 이 마을을 양지말이라고 불렀으며 청주 한씨 이양공파(한명진)

후손들이 대대로 촌락을 이루며 살아왔다.

(2) 가운데 당아래

가운데 당아래는 당아래 고갯길을 사이에 두고 양지말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로서 당아래 3개 마을 중 가운데 있는 마을이라 해서 가운데 당아래라고 했으며, 전주 이씨 화의공파, 원주 원씨, 수성 최씨가 혼재하여 촌락을 이루고 살아왔다.

(3) 너머 당아래

너머 당아래는 양지말에서 볼 때 가운데 당아래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너머 당아래라고 했으며, 당아래 3개 촌락 중 제일 먼저 형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이 너머 당아래는 원주 원씨 몇 집이 한 촌락을 이루고 조용히 살아왔다.

8) 모지래

가운데 당아래에서 너머 당아래로 넘어가는 오솔길을 끼고 있는 둥근 형의 낮은 산등성이가 있었는데 이 산등성을 모지래라고 불렀다(왜 모지래라고 했는지는 분명치 않음). 이 모지래에는 밤나무가 많아 아이들이 밤을 주으러 많이 다니던 곳이며, 얼마 전까지도 목장지로서 젖소들이 뛰어 놀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춘의로와 멀뫼길이 건설되어 다 없어지고 모지래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9) 사늘박

양지말에서 소사(역)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좁은 밭뚝길을 따라 나오는 길이 있었으며 이 길을 따라 나오다 보면 춘의산이 삼태기처럼 감싸던 곳이 끝나는 지점을 만나게 된다(춘의동 115번지 부근). 이곳에 다다르면 양지말의 봄같던 온화한 기운이 끝나고 부평벌에서부터 몰아치는 북풍한선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 양지말 사람들은 이곳을 ‘싸늘한 마을밖’이라 해서 사늘박이라고 불렀다.

10) 겉저리(예전 표절1리)

지금의 춘의사거리 부근 마을인 곁저리는 당아래 사람들이 볼 때 사늘 박 밖에 있는 아랫마을이었기 때문에 '마을 밖의 아래마을'이라는 뜻으로 곁에 있는 저리(절리) 즉, 곁저리라고 불렀던 것인데 일본인들이 들어와 한자로 표기하면서 '곁 표(表)'에 '마디 절(節)'을 써서 표절리라고 했으며 부천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도 표절리라고 했다. 이 곁저리도 낮은 산밑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6·25사변 당시 영국군이 주둔하면서 곁저리 뒷산을 깎아내어 운동장을 만들고 야구와 각종 운동을 하곤 했다.

11) 풍무굴(낫소 옆자리)

당아래에서 곁저리로 가는 중간에 전씨와 박씨가 운영하는 옹기점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화분을 굽곤 했었다.

그래서 이곳을 풍무굴이라고 불렀다.

12) 안골

춘의산에서 춘의동, 여월동 경계지점 동쪽 골짜기까지 형성된 지역으로 이곳은 춘의산에 보면 바깥쪽은 도당동쪽이고 안쪽은 여월동쪽이 된다. 그래서 춘의산의 안쪽에 해당된 지역이라 해서 안골이라 했으며 지금은 부천시민의 식수를 제공하는 정수장이 자리하고 있다.

13) 당아래고개

당재에서 내려가면 다시 원미산과 춘의산이 만나는 골짜기 고갯길을 넘어가야 하는데 고갯길을 "당아래 고개"라 했으며 또 넘어 고갯길이 뱀 같이 길고 꾸불꾸불하다하여 구룡목고개라고도 했다.

14) 밑우물

양지말에서 춘지봉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작은 옹달샘이 있는데 이 샘을 밑 우물이라고 부른다. 이 밑우물은 원래 유명한 약수로서 사대부집 규수들이 쌍가마를 타고 이곳에 와 약수를 떠 지성을 드리곤 하던 곳이

었다고 한다. 그런데 언젠가 이 마을에 이사온 아낙이 아이를 낳고 아이 똥걸레를 이 밑우물에서 빼아 밑우물은 부정을 타게 됐고 이후로 떼뱀이 생겨 사람들의 근접을 막았으며 물맛이 변했다고 한다. 그 후 어느 해 수많은 까치떼가 날아와 떼뱀을 잡아 먹기 시작했으며 이 때 동네사람들은 까치가 뱀을 물고 날아가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한다. 이 후 떼뱀은 없어졌으나 물의 효험은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밑우물을 수원으로 자연유하식 상수도를 설치하여 양지말 몇 세대가 식수로 활용하고 있다.

7. 상오정면(上梧亭面: 도당동, 약대동, 내동, 삼정동) 일대

부평군 당시의 상오정면은 현재 원미구에 속한 도당동(면적은 2.01 km², 8,933가구, 27,105명, 42개통 231개반), 약대동(0.69km², 5,753가구, 17,884명, 36개통 197개반)이 있고, 내동과 삼정동을 합한 오정구 신흥동(3.14 km², 8,142가구, 24,349명, 40개통 203개반), 오정동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오정면은 1914년 일제에 의해 부천군이 임의로 만들어지면서 하오정면에 해당하는 현재의 고강동, 원종동, 작동, 여월동 지역, 대장동이 속한 주화곶면과 함께 오정면이 되었다.

그 후 1973년 부천시가 탄생하면서 김포군 오정면에 편입되었다가 2년 후인 1975년 부천시로 복귀하면서 도당리, 약대리, 내리, 삼정리는 신흥동이 되었다. 신흥동은 인구 증가로 인해 1982년 9월 부천시 조례 제546호에 의해 도당동과 약대동은 신흥1동이 되고, 내동과 삼정동은 신흥2동이 되었다. 부천공구상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 1990년 1월 신흥1동 관할이던 도당동이 행정동으로 독립하였다. 이후 약대동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단일 행정동으로 독립하였다.

이들을 자연마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당동

도당이란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사인 도당굿이 행해졌기 때문에 붙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전에 춘의산 서편 언덕에 해묵은 나무 한그루 때문에 붙여졌다 는 이야기도 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시월 상달에 음식을 차리고 고사를 지내던 도당나무이다. 비록 지금은 당나무가 없어졌지만 여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본다.

한편 대원군이 천주교 박해시 신자들이 이곳 부근에 정착하여 옹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한 데서 붙여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도당을 어원적으로 보면 도당의 당은 산을 뜻하고 도는 건너 또는 넘어를 뜻하므로 도당은 건너산을 이른다고 할 수도 있다.

(1) 牛山골 또는 우산방죽골: 춘의산을 일명 牛山이라고 한데에서 붙여진 것이다. 이곳 일대에 있는 산을 우산방죽산이라고 한다.

(2) 매봉재산: 일명 앞산으로 높이는 106.5m이다.

(3) 개롱산: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4) 절골: 민방위 교육장 못 미쳐 삼양밸브연구소에서 여월동 양평목장으로 넘어가는 고개부근을 이르는데 예전에 이곳에 절이 있었으나 절에 빈대가 많아 중이 절을 버리고 떠났다고 한다.

(5) 절바위: 절골안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절바위라고 한다.

(6) 중주군골: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7) 거친(칠)고개(일명 황현): 균화제약이 있던 곳은 일제 때 오정면 신사가 있던 곳이다. 일제는 이곳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사람들이 강제로 이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 고개가 더욱 가파라 보여 거친(칠)고개라고 불렸으며, 한자로 표기하여 황현이라 불렀다.

(8) 아기장사바위: 절바위 앞에 있는 바위로, 전설에 의하면 옛날 어린 장사가 계양산에서 날아와 오른발 한쪽만 이 바위에 밟고 소변을 본 후에 관악산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현재도 장사바위 위에 어린이 발자욱 같은 흠이 파져 있다.

(9) 장고개(예전 도당1리): 춘의동 강남시장 맞은편 한국전력공사 부

천변전소(도당동 소재)에서 내동 방면으로 가다보면 부천공구상가와 삼성전자(주) 사이에 작은 고개가 있다. 이 고개는 이 동네사람들이 우시장이나 뱠내장에 갔던 장꾼들을 마중 나와서 기다리던 고개였기 때문에 '장꾼을 기다리던 고개'라고 해서 붙여졌다.

(10) 큰말(예전 도당1리):

2) 약대동

본래 약대는 현재의 약대동 뿐만이 아니다. 도당동, 약대동, 내동, 삼정동이 모두 약대동이다. 그리하여 약대와 삼정은 밖약대라 했고, 내동과 도당동은 안약대라 했다. 이 이전에는 약목이라 했으며 이 외에도 낙타라고도 했던 경우도 있었다. 약목이란 것은 '우마의 먹이인 거여와 나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곳에 약물터가 있어 藥垈라 하던 것을 음이 같은 若大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1) 목시통(또는 목숙통): 약대동 21-25번지 일대로 남쪽 가천자와 북쪽 화경이벌이 서쪽에서 만나 구릉의 끝을 이루고, 반갑재의 출발점이 되는 곳으로 약대주막이 있었다. 또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인천시 부평구 서운동 소재 영성산의 동쪽 구릉과 마주 보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중동신시가지 개발구역에 속해 있다. 목숙통의 목숙의 의미는 거여나무(우마의 사료로 하는 풀)의 한자표기이다.

(2) 목숙교: 목숙은 말과 소의 먹이를 뜻하며 목숙교는 약대동과 인천 서운동을 잇는 다리이다.

(3) 적곡(積谷, 토박이 말로는 적굴이): 약대감리교회 부근으로 4통, 12통, 19통 지역이다.

조선 중종 때 중신인 김안로가 굴포천을 굴착하다가 실패하자 공사에 동원되었던 노동자들 중 미귀향자들이 움막을 짓고 집단생활을 할 때부터 도적의 소굴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적굴이 패들은 구건너(삼정동 상산뫼) 패들과 상당기간 패권다툼을 펼쳤고 결국 적굴이 패들이 승리하여 통합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본

거지를 옮기면서 하우고개, 목숙통, 경명고개를 장악하고 수백년동안 경기도 서부지방의 화적으로 그 기세를 떨치다가 구한말 일본군에 의하여 완전 소탕당하였다.

(4) 원곡(院谷 혹은 원동 토박이 말로는 원골, 윙굴): 현대아파트 부근인 약대동 산 33번지 일대로 7통, 8통, 33통 지역이다.

(5) 꽃구지(花谷): 약대동 삼진연립 일대로 6통지역이다. 이 지명은 이 지역에 야생화가 많이 피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6) 양사(陽沙): 대우연수원 부근으로 11통지역이다. 양사는 '가뭄이 잘타는 모래밭'이라는 뜻이다.

(7) 정주(汀州): 약대동산과 그 동쪽기슭으로 2통 일부, 3통, 10통지역이다.

정주는 강.내.못.호수.바다 등의 평평한 물가에 토사가 쌓여서 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8) 정주 아래: 약대동산 서쪽 기슭인 약대 141-144번지 일대로 부홍정미소가 있던 5통지역이다.

특히 얼마 전까지 부홍정미소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부홍정미소를 정주아래 방아간이라고 불렀다.

(9) 가천자(加川子): 약대동 산 5-1번지 일대에서 목숙통에 이르는 구릉의 서남쪽지역으로 약대동 1통, 15통이 해당된다. 가천자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전해내려오는 것이 없으나, 가천자는 지명 그대로 가천의 자로 이해된다. 그러나 가천이 무슨 뜻인지는 숙제로 남아 있다.

(10) 반갑재(泮岬峴): 물가 언덕과 산기슭이 있던 곳을 반갑재라 한다. 이 지역은 약대주공아파트 남동쪽에 약대 중앙교회에 이르는 좁은 길로 14통과 15통 지역이다.

(11) 하계야 벌: 약대 1-25번지 일대의 논으로 일제 때 일본인이 소유주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 같다.

(12) 화경이벌(和京伐): 약대동 1-10번지 일대로 현재 중동신시가지 개발지역에 속해 있다. 반갑재 동북쪽을 이르는데 화경이란 한나라의 소무와 연나라 단이 몸을 깨끗이하고 절개를 지키는 것을 상징한다.

(13) 할머니 동산(혹은 너머 할머니산): 약대동 87-91번지 일대(9통 지역)로 예전에 할머니당이 있어서 붙여진 명칭으로 보이며, 이 때 할머니당은 할아버지당과 짹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야산은 구건너(삼정동 상산뫼) 가는 길목에 있었으며 서낭당의 돌무덤이 있었다.

(14) 분듯재: 약대에서 원종동으로 가는 데에는 8개의 고개가 있었는데 그 중의 첫번째 고개이다.

(15) 농장마을: 도당동 강남시장 입구에서 약대동으로 가는 초입에 예전 일본인 반전선사랑, 반전용일 부자가 경영하던 반전농장이 있었다. 이 농장으로 인해 부근을 농장마을이라 부른다.

3) 내동

이곳은 춘의산 북녘으로 이어진 능선 끝과 삼정동, 대장동, 오정동 일대가 예전에는 높지대가 되어 아득하고 남향진 자리적인 요인에 따라 붙여진 명칭으로 보인다. 즉 춘의산 북쪽 기슭과 내동고개가 삼태기 모양으로 완만한 골짜기를 이루고 있었으며, 지금의 태양공구상가 부근에는 얇으막한 야산이 있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부평 관에서 보면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약대라고 불리던 곳이다.

(1) 봉어마루산: 예전에 중부경찰서가 있던 얇으막한 야산을 이른다. 경원세기 뒷쪽에 있는 개울은 동네 아이들이 먹을 감던 곳으로 이 개울은 아무리 가물어도 봉어등 만큼의 물은 남아 있어 봉어마루라 하였으며, 하나주유소가 있는 6형제 마을 뒷산을 봉어마루산이라 하였다.

(2) 앞군논(압구지): 내동중학교에서 내동파출소 부근의 지명으로 논이 위치하고 있던 곳이 매우 깊고 묵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곳에 있던 큰 연못인 압구지를 매립하여 논이 되었으나 역시 깊어 '마을 앞에 있는 군논이다'해서 앞군논이라 명명하였다.

(3) 조석다리들: 압구지 부근 통나무 다리가 있던 부근의 들을 이른다.

(4) 열미다리들: 압구지 부근 또 다른 통나무 다리가 있던 부근의 들을 이른다.

(5) 척척골들: 내동인터넷인지에서 경원세기 부근에 있던 들로 오정동, 삼정동, 내동의 언덕들이 모여 있던 골짜기에 있어서 척척골들이라 하였다.

(6) 녹교지들: 원종동으로 가는 거친고개 너머에 있던 들을 말한다.

(7) 상아재들: 녹교지들 부근의 들을 말한다.

(8) 내촌주막: 이곳은 시흥시 뱠내장과 김포군 황어장(현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이기도 해서 이곳에 주막에 형성되어 있었다.

(9) 봉어내: 내동인터넷인지로 접어드는 길목이 현재는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곳까지 물이 들어와 봉어가 많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4) 삼정동

삼정동은 세개의 川을 뜻하는 수신계 지명으로 볼 수 있다. 3개의 내는 원골천, 소개미천, 내천이 모여 압구지를 이뤘고, 압구지를 3이라고 한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고, 마을에 세개의 우물이 있어서 붙여졌다 고도 한다. 어느 경우이든 물과 관계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압구지에는 1800년 초까지 배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삼정동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 밀양 박씨 규정공파 박선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선은 경기도 파주에서 이곳으로 왔다. 그는 숙종 15년(1683) 특별 시험인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를 지냈으며 변혁조, 이상, 한세보, 남징, 남연, 이동표, 성엽 등과 더불어 계양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계양 8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워졌다.

박선의 아들인 박규문은 궁화집이란 문집을 남긴 문인으로 남휘, 이상 등과 더불어 계양3호걸로 불리워졌던 사람이다. 박규문도 역시 숙종 때에 증광문과에 급제한 인물로 도량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평을 들었다.

이렇듯 문장에 뛰어난 선비를 두었던 삼정동의 소지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승백이: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마을에 들어오려는 악귀를 쫓기 위해 세워진 장승이 경인고속도로 너머(구 도로변)에 있었다. 장승은 커다란 고목을 숭배했던 원시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옛날 사람들은 장승에게 길떠난 가족의 안녕을 빌기도 하고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기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승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큰 거리에 세워 고을에서 고을까지의 거리를 새겨 넣어 이정표를 삼기도 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길가는 나그네는 장승을 보고 길잡이를 삼았으며 그 밑에서 개나리 봇짐을 풀어 놓고 쉬어 가기도 하였다. 장승의 어의는 반도를 뜻하는 갑, 곳, 단, 감, 두, 말과 같이 경계를 뜻한다.

장승백이가 있던 주변의 논들을 장승백이 들이라 하였다.

(2) 상살미산: 삼정동 190번지 일대를 이르는 명칭으로 일명 반갑재라고 하는데 현재 고속도로 입구에 위치한 한국화장품 공장 일대 지역이다. 상산은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산을 이른다. 즉 중국의 태산이 비록 높지는 않지만 정신적 지주가 되는 산이듯이 상산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상살미산이 있던 주변을 상살뫼들판이라고 하였다.

(3) 삼정리뒷들: 경인고속도로 위쪽 삼정동 뒤편에 있던 논의 명칭이다.

(4) 앞군논(압구지): 내동중학교에서 내동파출소 부근의 지명으로 논이 위치하고 있던 곳이 매우 깊고 묵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곳에 있던 큰 연못인 압구지를 매립하여 논이 되었으나 역시 깊어 '마을 앞에 있는 군논이다' 해서 앞군논으로 명명하였다.

(5) 뒷군논: 삼정동 뒤편에 있던 논의 명칭이다.

(6) 된벌(높은 벌): 삼정동에서 예전에 농장이 있던 곳 못미쳐, 앞에 있던 논으로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7) 양숙이뚝: 삼정동에서 누대를 살고 있던 박정래(유도회 부평지부장을 지낸 박노송씨의 선친)씨 소유의 논이 있던 곳에 있던 뚝으로 박정래씨의 호인 양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8) 이호선뚝: 앞 군논 부근, 이호선 소유의 논이 있던 뚝 이름이다.

(9) 산구뚝: 삼정동에서 내동을 연결하던 뚙으로 갑자년(1924년)에 뚙을 만들 때 일본인 산구라는 사람의 소유였던 논의 중간으로 뚙이 생겨 붙여진 명칭이다. 이들 세 뚙을 비롯한 이 지역에 만들어진 뚙은 조수시 1미터 내지 1.5미터까지 한강물이 올라왔던 지역으로 뚙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10) 기와 구덩이: 삼정동 천주교회 부근의 명칭이다.

(11) 고라개 다리: 삼정동에서 한다리로 가는 중간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12) 데보뚝: 한성공영(주) 입구에서 대장동 큰말까지 걸쳐 있는 동부 간선수로(한강수로)를 이른다. 촌로들에 의하면 일제 때 이 뚙을 쌓기 위해 중국 노동자를 많이 동원하여 희생자가 많았다고 한다.

8. 하오정면(고강동, 원종동, 작동, 여월동) 일대

고강동, 원종동, 작동, 여월동은 우리 지역이 부평군에 속해 있을 때 하오정면 지역이었다. 이미 아다시피 오정면은 상과 하로 나뉘어 오다가 일제가 동족마을화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1914년 군면 통폐합을 단행하여 두 면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梧亭(오정)은 선조 때 고강동에서 태어나 인조 때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지낸 변삼근의 아호이다.

이 지역에 오동나무가 많았던 것은 기록에 전하고 있다. 대체로 행정명이나 마을이름에서 아호를 따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변삼근은 그가 살았던 오정에서 아호를 따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지역의 행정동 명칭은 고강동 지역은 고강본동과 고강1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원종동은 원종1동과 원종2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자연마을인 여월동과 작동은 각기 인구가 3만명이 넘지 못하여 두 마을이 합쳐져 행정동으로 성곡동이라 부른다.

1) 고강동

고강동은 부천에서 가장 먼저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이곳은 세종 15년(1433) 이조참판에 추증된 밀양 변씨 변예생이 서울에서 30여리 떨어진 黑梁里(흑량리: 현재의 고강동)에 정착하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고강동이란 명칭은 '옛날에 있던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고리울에서 '古'. 강장골에서 '康'자를 따서 붙여진 것이다.

현재 고강동은 고강본동과 고강1동으로 형성되어 있다. 고강본동은 1.71km², 10,759가구에 32,620명이, 고강1동은 1.84km², 5,882가구에 18,094명이 살고 있다.

(1) 강장골(예전 고강3리, 현재 29통 4반 지역): 강장은 세조 때 판서를 지낸 변종인의 시호인 恭莊(공장)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공장이 강장으로 소리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밀양 변씨 대동보에는 康莊의 표기를 처음 康莊谷이라 하였다가 康上골로 변했다고 하였다. 일제 때인 1918년 만들어진 '조선지지자료'에는 續常谷으로 표기되어 있다.

(2) 능골(현재 한우리관광회사 차고 뒤와 장미아파트 북쪽 지역): 부천시 향토유적 제1호인 공장공 변종인의 신도비가 있는 부근 지역. 능이라고 한 것은 왕릉은 아니지만 정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관리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것이다. 이곳에는 변종인 이외에도 변삼근, 변영만, 변영태, 변영로의 묘가 있다.

(3) 아랫말(일명 아래마을, 정경부대 밑 기와공장이 있는 지역): 능골 아래에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4) 뒤골(後谷): 고강아파트 맞은 편 지역, 즉 북쪽 지역이다.

(5) 샘말(금강아파트가 있는 20통 지역): 《조선지지자료》에는 샘(우물)의 한자식 표기인 윤을 사용하여 이곳을 潤村(윤촌)이라 하였다.

(6) 샛말(고강본동사무소 부근): 마을 사람들은 새마을이 줄어서 붙여진 명칭이라 한다.

(7) 샛골: 샛말에서 뒷골쪽으로 철탑 못미친 지역, 즉 샛말과 응골 사이를 샛골이라 한다.

(8) 응골(應谷): 수주로에서 서울 경계에 있는 가로 공원 돌산 동남향의 철탑 부근 지역이다.

(9) 한배미: 응골과 샛골 사이에 있는 큰 논을 이르는데 '한'은 토박이 말로 '크다'이고 '배미'는 논을 세는 단위이므로 큰 논배미를 이른다.

(10) 삼태골: 삼태기 모양을 하고 있어 붙여진 지명으로 수주로에서 서울쪽으로 가다보면 철탑을 지나 한도주유소 못미친 지역이다.

(11) 내며리(소두머리): 삼태골과 응골 사이의 논이 있던 지역으로 현재는 화원들이 들어 차 있다. 이 일대의 논을 소두머리들이라고 한다.

(12) 무덤굴: 한도주유소 부근을 이른다.

(13) 안산골: 강장골에서 안산으로 향한 지역. 은행 단지에서 원종동 쪽으로 내려온 지역이다.

(14) 은행단지(12통 지역): 3공화국 시절 이곳에 가로수용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 단지를 형성하였다 하여 붙여진 명칭. 예전에는 부천군과 김포군의 경계지역으로 서낭당이 있었던 곳이다.

(15) 건너말(일명 괴리동, 혹은 고리울이 아닌가 한다): 서원아파트 아래 고강주유소 부근을 이르는 명칭이다. 槐里洞에는 茶田, 屈雲山, 案山谷이 있다.

(16) 장개말(혹은 쟁갯말, 17통 지역): 일식집 호림원 부근.

(17) 곰달래고개(작동과 신월동 경계지역, 즉 범바위산에서 신정동 고속도로 부근): 기록에는 古音月嶺(고음월령)으로 표기하고 고음달래고개라 하였다. <밀양 변씨 대동보>에는 古達峴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달래강 또는 달래산 등의 유래와 비슷한 연유에서 붙여진 것으로 신월동과 경계이다.

(18) 도당뫼(陶唐山): 도당굿이 행해졌던 굿으로 생각되나 위치는 미상이다.

(19) 莊丁골(예전 고강1리)

(20) 고리울: 일명 槐里洞으로 이곳은 고강동의 한 축이기도 하다.

(21) 간담뫼(肝膽山, 혹은 間淡山): 서원아파트 너머 부천프라자(구 나드리쇼핑) 못미친 원종동 쪽으로 고강동과 원종동의 경계지역이다. 이

곳에는 잠조당약수터가 있는 신작동에서 발원한 고리울천이 흘렀다.

이곳에 間淡山 차밭(茶田)이 있었다.

(22) 찬우물: 고강동에서 삼성 사원아파트 못미쳐 작동으로 가는 길에 경인고속도로 굴다리가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도 구옥들이 있다. 이곳을 찬우물이라 불렀다. 찬우물 뒷산이 청룡산으로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굴된 곳이다.

(23) 청룡산: <밀양 변씨 대동보>에는 강장동(康莊洞) 청룡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찬우물 뒷산으로 이곳 정상에서 1995년 10월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어 신고되었다. 1996년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조사 발굴작업이 이어져 주거지인 움집과 반달돌칼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24) 돌다리: 현재 고강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예전 고리울과 강장굴을 경계짓는 두 개의 큰 돌다리가 있던 지역이어서 이 부근을 돌다리라 하였다.

(25) 장안사산: 작동지구와 경계를 일고 있는 산으로 높이는 80.3m이다. 청룡산이 아닌지?

(26) 가루지골: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27) 뒷버들: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28) 오정현곡(梧亭見谷):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29) 시곡(蒔谷):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2) 원종동

춘의동 당아래에서 내려다 볼 때 '멀리 둥그렇게 산마루'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 한자로 표기하여 원종동이라 하였다. 이곳을 멧마루라고도 부른다.

멧는 산을 뜻하는 '메'와 같은 뜻의 말이다. 마루는 신라 때에 왕이 높은 곳에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데서 나온 말로 으뜸, 높은, 또는 등성이를 뜻한다. 그러므로 원종동인 멧마루는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원종동은 1동과 2동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원종1동은 1.61km^2 , 7,461

가구에 23,704명이, 원종2동은 0.78km², 8,627가구에 27,282명이 살고 있다.

- (1) 봉안산(鳳鞍山): 삼부아파트, 옥일아파트, 동문아파트 지역이다.
- (2) 계산(鶴山): 원종동사무소, 공원, 버들 테니스장에서 은데미 뒷산이다.
- (3) 방우리들(鈴野): 삼부아파트 앞에 있는 논들을 이른다.
- (4) 건만니들(乾満野):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5) 성재(일명 헐떡고개): 오정초등학교에서 오쇠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6) 성터골: 먼마루 동쪽지역으로 의령 남씨 집성촌이다. 의령 남씨 중 무인이 있었는데 그 집 주위가 흙으로 높이 둘러 쌓여서 성곽처럼 축성을 했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설과 이 무인이 집 위 야산에서 무술연마를 했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성터골이 성재너머가 되었다.
- (7) 언대미: 일명 은데미, 한자로는 언담리(彦淡里)로 7.8.26통 지역, 346번지-373번지이다.
- (8) 새기(혹은 쇠귀 또는 수오귀, 9.11통 지역 280번지-326번지): 자료에는 壽域里로 표기되어 있다. 새터말에서 작은 산마루를 넘어 남쪽 남향밭이 마을로 의령 남씨 종산이었던 뒷산은 우마를 함께 매장했던 소산소가 있었다.
- (9) 새터말(서림아파트 주변, 옛날 오정면사무소 남쪽 지역 236번지): 외지인들이 계산 기슭 양지바른 터에 집을 짓고 새 삶을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 (10) 먼마루(삼경아파트 주변 67-13번지에서 274번지 일대): 이 명칭에서 원종동이 탄생하였다.
- (11) 밖오시: 오쇠리 지역으로 7.8.9.10.11통 지역이다.
- (12) 뒤보뚝: 원종동 11-1, 11-2, 12-1번지, 동신제약에서 오쇠리쪽으로 200미터쯤 내려가는 곳에 있는 다리 부근이다.
- (13) 용구리: 원종동 24-1, 2, 3번지 일대로 뒤보뚝 서쪽지역이다.
- (14) 방우리 번당: 원종동 56-1, 52-1, 52-4, 77-1, 78-2 일대 지역

이다.

- (15) 앞보뚝: 한아름아파트 주위로 129-1, 6, 28번지 일대 지역이다.
- (16) 거칠개(황현): 앞보뚝 서쪽 비릿내천 건너의 오정동 143-4, 147-5번지 일대이다.
- (17) 중보뚝: 원종동 96-3, 4, 119-2, 3번지 일대이다.
- (18) 안군논: 원종동 87-1, 2, 90-1, 2번지 일대이다.
- (19) 방아가저: 주공아파트 서쪽으로 원종동 118-3, 4 119-1, 2번지 일대이다.
- (20) 김마루: 오정동 2-1, 2, 125-1, 2번지 일대이다.
- (21) 방꿀이: 덕산중학교 자리, 오정동 118-1, 2, 3번지 일대이다.
- (22) 한채집 뒤: 방꿀이 북쪽 지역이다.
- (23) 가리꿀: 방꿀이 남쪽 지역이다.
- (24) 원종동 도당우물 대동제: 매년 음력 3월 1일과 7월 1일에 거행하는 마을의 공동축제이다. 이 때는 소머리나 소를 제물로 바쳤다. 즉 해방 전까지만 해도 춘기인 3월 1일 대동제 때는 소머리를, 우기인 7월 1일에 거행하는 대동제 때는 소 한마리를 잡아 제물로 바쳤다. 이 마을에는 200여년 전부터 밀양 손씨, 안동 김씨, 의령 남씨, 평산 신씨, 경주 최씨 등 100여호가 주성을 이뤄 우물 하나를 사용해 왔는데 그 우물은 마을 수호신의 역할을 겸하여 '도당우물'이라 불렀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삼태기와 같이 둘러싸여 있는 이 동네에 해방 후 대동제를 주관할 만한 사람이 없어 2년여 동안 치성을 드리지 않자 화가 닥쳐 마을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자 다시 대동제를 거행하게 되었다.

대동제를 행하는 절차는 다른 곳의 대동제와 대동소이하나 이 때 제물로 바친 소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며, 대동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미나리꽝에 미나리를 심는 것은 원종동만의 특징이다.

도당우물은 원종대로변에 새로 팠다.

3) 작동

까치울을 한자로 표기하여 작동이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鵠은 우리가 널리 부르고 있는 설날노래 가사 중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제이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지요'가 본래는 '아제 아제....'인 것으로 볼 때 '아제'가 '까치'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아제는 작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까치는 작다는 뜻도 있으므로 작고 아득한 마을이란 뜻이다. 이곳은 성종 때 부마를 지낸 경숙옹주의 남편 여천위 민자방 후손인 여홍 민씨가 주성을 이루고 살아온 곳이다.

자연마을인 작동과 여월동을 합쳐 행정동인 성곡동을 형성하였다. 성곡동은 4.09km², 11,990가구에 36,869명이 살고 있다.

(1) 까치울

능안의 북쪽 산 너머가 까치울이다. 여홍 민씨가 주성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까치가 많아 까치울이라 하였으며 혹 김유신 장군과 연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까치 鵠이 붙은 곳의 대부분이 작은 마을인 것으로 보아 마을규모로 인해 붙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2) 시루뫼(증산)

지금은 신월동으로 통하는 춘의로가 뚫려 모양 사납게 파헤쳐져 있지 만 작동의 앞산이었다. 비린내가 흘러드는 곳에 아주 기름진 넓은 들이 있다. 이 기름진 들 한복판에 떡시루를 엎어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을 한 산이 있었다. 이 시루뫼가 있던 들을 시루뫼들이라 하였다. 이 산의 흙을 파 중동신시가지 땅을 돋을 때 사용하여 산이 없어졌고, 현재는 3만 평 규모의 오쇠리 항공소음이주단지를 형성 중이다.

(3) 범바위산(호암산, 토박이말로는 봉배산): 잠조당약수터(구 장수천 약수터) 위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아래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4) 절골: 궁동으로 넘어 가는 길목에 있는 계곡으로 예전에 절이 있었으나 절에 빈대가 많아 중이 절을 버리고 떠났다고 한다.

(5) 탑골(토박이말로는 탁굴): 책상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계곡으로 5통 새말지역이다.

(6) 점골: 대원군 집정 때 천주교 박해를 피해 온 신자들이 이곳에서 옹기를 구으며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일명 점말이라 한다.

(7) 지골: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과 경계를 이루는 계곡으로 이곳에는 약수터가 유명하다. 이 약수는 옷에 걸린 사람에게 효험이 있다고 하여 소문이 자자하였다.

(8) 삼막골: 새말에 소재한 소지명으로 지골 부근이다.

(9) 봉천이골: 깨를 많이 재배하여 돈을 많이 번 봉천이와 관계있는 지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부근 지역이다.

(10) 서름이터: 범바위산 밑 장수의 발자국이 있는 바위가 있던 곳으로, 부자인 서름이가 살았다는 데서 유래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11) 잠조당약수터: 범바위산 밑에 있는 약수터로 얼마 전까지 장수천 약수터라 불렸으나 약수터 위에 청백리로 이름 높은 전라도 관찰사 잠조당 박처륜의 묘가 있어 그의 청렴한 정신을 본받기 위해 명칭을 바꾼 것이다.

(12) 신작동: 원래 정착지인 곳에서 한 고개 넘어 형성된 마을로 잠조당 약수터가 있다.

(13) 사루지: 신작동 고속도로 부근 마차길이 있던 지역을 이른 말이다.

(14) 불근들리(토박이말로는 불근북지): 적은평 혹은 불근달리라고도 하는데 황토 흙이 많았던 지역이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위치는 사루지 위에 있다.

(15) 능너머 고개: 성종의 부마 민자방의 산소 등 여홍 민씨의 선산이 있는 능안(한씨 묘역에서 능너머고개 사이)에서 신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16) 새말: 작동에서 여월동 쪽에 있는 마을의 명칭이다. 이 부근에 있던 고개가 새말고개이다.

(17) 응달말: 까치울에서 능안으로 넘어가는 지역. 즉 능안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이곳은 동남쪽에 산이 가리고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18) 바람모퉁이: 성곡동사무소에서 까치울로 들어가는 지역, 즉 시루 꾀 앞으로 이곳은 삼태기 모양을 하고 있어 북풍이 바로 몰아치는 지역 이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19) 활터고개: 까치울에서 신작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20) 과녁터: 활터고개에서 활을 쏠 때 과녁이 있던 곳으로 까치울에서 응달말로 가는 사거리 지역이다.

(21) 화죽굴: 불을 질러 땅의 경계를 삼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청주 한씨와 여홍 민씨의 선산 경계이다.

(22) 당넘너: 장미, 미성아파트 부근으로 예전에 이 지역 부근에 서낭당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23) 작미골: 까치울에서 춘의로 맞은 편 골짜기를 이르는 말이다.

24) 수령고개: 지굴에서 온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25) 삼태기산: 새말 부근에 있는 높이 69.5m의 산.

4) 여월동

점말, 안동네 등의 마을 형태가 반달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명칭이다.

(1) 점말: 여월동 초입 170번지 일대 마을을 이르는 명칭이다. 이곳은 조선말 대원군 집정시 천주교 신자들이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이곳에 피신하여 생업으로 옹기를 굽던 곳이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점촌이라고도 한다. 마을이름에 '점'자가 들어간 동네는 거의 옹기·그릇과 관련이 있는 마을이다.

(2) 새텃말: 여월동 42번지 일대로 수성 최씨와 의령 남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

(3) 방골: 여월동 안동네(일명 원씨촌)에서 역곡동으로 가는 길 부근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4) 안골: 춘의산 아래 부천시 정수장이 있는 지역이다.

(5) 성골(城谷): 여월동 89번지 일대로 행정명인 성곡동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6) 효경골: 성골 너머 지역으로 문화 류씨, 의령 남씨, 수성 최씨가

모여 살고 있었다.

- (7) 안산: 여월동 산 59번지 일대로 안동네 앞산이다.
- (8) 신사터: 44공병대 물탱크가 있었던 지역으로 일제 때 이곳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오정면신사가 있었다.
- (9) 능미(陵尾): 성곡동사무소 북쪽 돌산 밑으로 능의 꼬리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신사터 끝에서 비릿내천 끝 지역으로 고속도로 위이다.
- (10) 거친(칠)고개: 구룡목고개와 예전 균화제약(주)으로 가는 고개로 신사참배하러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었을 뿐만 아니라 숲이 우거져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 (11) 사루개고개: 여월동 220번지 일대로 점말에서 사루개로 가는 길목에 있던 고개.
- (12) 봉골(일명 봉황골, 봉곡 또는 봉동): 큰 망골과 작은 망골 다음에 있는 세번째 골짜기를 봉골이라 한다.
이 계곡은 매우 아름다워 봉황이 날아왔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문화 류씨의 선산이 있다.
- (13) 가마골: 성곡동사무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는 도로변에 있는 골짜기. 여월동에는 이외에도 웃골과 밤나무단지 등이 있다.
- (14) 고래당
봉골과 여월동 안동네에서 적은 고개를 넘어 김포공항으로 통하는 국도에 있는 원미동과 여월동 경계까지 빛밋한 원미산의 얇은 등성이를 고래당이라 한다. 이곳 북쪽 밑에 있는 마을이 점말(일명 점골)이다.
- (15) 서낭당
여월동에서 고비골로 넘어가는 고개마루에 서낭당이 있는데 이곳을 기준으로 남쪽을 당아래, 북쪽을 당너머 또는 구룡목이라 한다.

9. 송내동, 상동 일대

송내동과 상동은 부천군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심곡동, 중동 등과 함께

부평군 석천면 지역에 해당한다.

이 때 송내동은 석천면 구지리와 산곡리에 해당되고, 상동은 석천면 상리에 해당되었다.

이들 지역은 부천군이 탄생하면서 계남면 지역이 되었다가 소사면, 소사읍을 거쳐 1973년 부천시 송내, 상동이 되었다. 1985년 11월 15일 송내동과 상동으로 나뉘었다. 그 후 송내동은 인구증가로 인해 1990년 1동과 2동으로 나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송내1동은 1996년 10월말 현재 1.13km^2 , 7,630가구에 25,008명이, 송내2동은 1.24km^2 , 7,394가수에 23,110명이 살고 있다.

1) 송내동

(1) 솔안말: 경인국도와 경인전철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부평군 때에는 산골과 함께 석천면 구지2리였다.

이곳은 시 승격 직후에도 언덕산과 이 마을 초입에 해목은 소나무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글자 그대로 소나무로 둘러쌓인 안동네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송내동은 여기에서 연유한 것으로 소나무는 한자로 松, 안은 한자로 內, 말은 마을의 준말이므로 洞, 이렇게 해서 송내동이 된 것이다.

(2) 구지리: 일명 구짓말로 송내동 북편 마을, 송내동 12통 2반 지역 이었다가 상동으로 분동되었다.

이곳은 예전에 구지(構木)나무가 있어서 이 마을을 구지말이라고 불렸다.

(3) 산골: 현재 송내1동 사무소가 있던 마을이다. 이곳이 형성된 것은 임진왜란 전에 부천에 정착한 죽산 박씨 박철정의 6세손인 박세환이 사래리(현 역곡2동)에서 이곳으로 오면서부터이다. 부평군 때는 석천면 구지2리에 속한 山谷洞이라고 불렸다. 이곳에는 죽산 박씨 이외에도 평산 신씨 사간공 후예들이 10대 300여년간 살고 있다.

(4) 서촌말: 송내1동 240-270번지 일대를 이르는 말이다. 이곳은 서쪽은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과, 남쪽은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1920년대 발행된 지도에는 馬墳里(마분리)로 표기되어 있다.

서촌말이라고 불리게 된데에는 몇가지 설이 있다. 첫째가 서씨 중 이천을 본관으로 한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서씨마을 즉 서씨들이 사는 촌락이다 해서 서촌말이라 하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설은 이곳은 좁고 길다란 길이 있어 '서서히 넘어가는 마을이다' 해서 서촌말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다. 이외에도 '부천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 하나 신빙성이 약하다.

(5) 상산: 솔안말 옆에 있던 산으로 불여우가 출현한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6) 병도창: 솔안말에서 경인국도변쪽을 兵都倉이라 한다. 이는 일제 때 부평에 인마나 군수품의 보충, 운반 등을 맡았던 병참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군사시설은 아니더라도 군대가 머물렀던 지역인 것만은 틀림 없다.

(7) 산우물 주막: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8) 양안리: 구지리와 심곡리 경계에 있던 마을로 현재 유성기업과 (주)삼정임대공단(전 아이디알미싱) 사이에 있던 작은 마을이었다.

(9) 방아다리 논: 송내1동 8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로, 연자방아에 쓰는 방아로 개울을 건너는 다리를 놓았다는 데서 그 명칭이 붙여졌다.

(10) 밭뜯논: 송내1동 53-8의 논을 이르는 말로 예전에 밭이었던 곳을 1920년대 수리조합 설립 후 논으로 만들었기에 '밭을 뜯어 논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11) 연자방앗간: 송내1동 84번지의 대지이름으로 예전에 이곳에 연자방아가 있었기에 붙여졌다.

(12) 수렁배미 논: 송내1동 101번지 논을 이르는 말로 이곳은 소가 들어가 논을 갈지 못할 정도의 깊은 수렁이었기에 붙여진 명칭이다.

(13) 소나무백이논: 송내1동 148-9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로 예전에 논 가운데 소나무가 서있었던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 (14) 밤곶이논: 송내1동 157-4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이다.
- (15) 개건너 논: 송내1동 160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로 개울 건너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 (16) 뱀논골: 송내1동 211-22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로 논배미가 마치 뱀처럼 길게 생겼던 데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
- (17) 배뜰: 송내1동 280번지 일대에 소재하는 마을의 옛 이름이다.

2) 상동

상동은 현재 상동과 상1동으로 형성되어 있다. 토박이가 많이 사는 상동은 0.91km^2 , 7,331가구에 23,278명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대량건설로 인해 유입 인구가 많은 상1동은 2.25km^2 9,644가구에 33,114명이 살고 있다.

(1) 사래이: 이 지역은 홍수 때 산에서 모래가 마을이나 논까지 많이 밀려와 마을 이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척박한 토양으로 인해 전답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곳이다.

또한 서촌말이나 주변 마을 지주들이 묘지기나 마름에게 보수로 사래를 한 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붙여졌다고도 한다.

(2) 구지리: 전철 송내역이 있는 지역이다. 상동이 송내동에서 분동되면서 상동 11통 지역이 되었다. 이 마을은 여주 이씨 소릉공파가 주성을 이루고 살았었다.

부평군 때에는 석천면 구지리로 구짓말은 구지1리 지역이고, 솔안말과 산골은 구지2리였다. 구지리라 하게 된 데에는 토질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온 동네가 온통 물이 잠겨 지붕 추녀 끝까지 침수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이 지역은 크지 않은 비에도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땅이 질어서 구질구질하기 마련이었다. 이로 인해 마을 이름이 구지리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에 구지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도 이야기되고 있다.

(3) 장포들(張浦坪):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4) 신상리: 부평과 접해 있는 마을이 새로운 상리인 신상리로, 상동 신시가지 개발이 계획 중이다.

(5) 벽돌막(새마을): 이곳에 벽돌공장이 들어서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로 인해 주택들이 새로 들어섰다고 해서 새마을 또는 새말이라고도 부른다.

(6) 신마분리(新馬墳里): 이곳에 새로운 말무덤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보인다.

여기에서의 말무덤은 말이 묻혀 있는 무덤이 아니라 말이 땅이름이나 어떤 낱말의 앞 음절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뜻은 '큰(大)'의 뜻으로 많이 붙는 음절이다. 예를 들면 말무덤은 '큰 무덤', 말벌은 '큰 벌'을 뜻 한다. 또한 말은 '위(上)', '높음', '신성함', '처음' 등의 뜻을 지닌 경우가 많으므로 말무덤은 '큰 무덤' 또는 '꼭대기에 있는 무덤'을 일컫는다.

(7) 바퀴논: 상동 51-1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이다.

(8) 수챗물 논: 상동 58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로 이곳은 침수가 잦아 수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9) 동네방죽: 상동 71(혹은 74)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로 이곳에 방죽과 같은 큰 웅덩이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10) 배락논: 상동 74-2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이다.

(11) 쪘갈논: 상동 86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로 갈논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12) 갈논(들): 상동 95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이다.

(13) 운동군논: 상동 107-2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이다.

(14) 돌다리논: 상동 121-2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이다.

(15) 동정머리 논: 상동 131, 132, 133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이다.

(16) 두명배미 논: 상동 144-1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로 논모양이 물을 길어 담아 두고 쓰는 큰 가마나 큰 독처럼 생긴 두명과 같다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된 듯하다.

(17) 쇠밭이 논: 상동 154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로 예전에 이곳은 소를 매어놓곤 하던 갈대밭이었는데 일제 때 수리조합 설치 후 논으로 만들었다.

(18) 물문개 논: 상동 157-1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로 큰 배수문 아래 위치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19) 세벽구덩이 논: 상동 163-1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로 이곳에서 벽을 바르는데 쓰이는 고운 모래가 많이 났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20) 밭뜬논: 상동 174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이다.

(21) 대리미재: 상동 175-4번지 일대의 밭을 이르는 말로 중동-상동 간의 경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밭의 모양이 다리미처럼 생겼다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

(22) 세귀밭 논: 상동 192-2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로 논의 모양이 세 모형 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23) 봉초(추)논: 상동 192-2, 252, 253번지 일대의 논을 일컫는 말이다.

(24) 덕배미: 상동 210-1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로 '덕배미'란 땅이 기름진 논이란 뜻이다. '배미'의 '논배미'의 준말로 논의 빼기를 세는 말이다.

(25) 성머리: 상동 216-1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로 이곳은 다른 곳보다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유래한 것이다.

(26) 장승백이 논: 상동 223-5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로 음력 시월 상 달에 도당굿을 할 때 장승을 세웠다는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예전에 도당굿을 할 때 마을 두 곳에 장승을 세웠다고 한다.

(27) 도당재: 상동 22번지 일대의 밭을 이르는 말로 예전에 당을 세우고 도당굿을 하던 곳으로, 당시에는 아람드리 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한다.

(28) 들마당: 상동 252-4번지의 밭이름으로 이곳에서 일본인 신부정 웅이 경영하던 농장의 공동타작을 하였다고 한다.

(29) 백제논: 상동 263, 266-1, 2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이다.

- (30) 개새이 논: 상동 286-1번지의 논을 이르는 말이다.
- (31) 앞자리 논: 상동 300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로 현재 부천여고 뒷편 지역이다.
- (32) 쪽다리 논: 상동 303-1의 논을 이르는 말로 이곳에 개울을 건너는 왼쪽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 (33) 앞방죽 논: 상동 314번지 일대의 논을 이르는 말로 현재 부천여고가 들어선 자리이다.
- (34) 장승백이 밭: 상동 318번지의 밭을 이르는 말로 옛날 10월 상달에 마을의 안녕을 비는 도당굿을 할 때 이곳에 장승을 세웠다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 현재 솔개다방이 있는 곳이다.

10. 오정동, 대장동 일대

1) 오정동

오정동은 부평군 상오정면에 해당하였던 지역이다. 이곳은 1914년 부천군이 탄생할 때 오정면 지역이었다.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잠시 김포군에 속해 있다가 1975년 부천시에 복귀하였다.

1996년 10월말 현재 대장동을 포함하여 6.88 km^2 , 7,037가구에 22,170명이 살고 있는 오정동은 부천평야 북단에 위치하여 김포평야와 부평평야에 맞닿은 평야가 전개되어 있는 지세이다. 이러한 지세로 보아 1988년 말 현재 부천시 경지면적 1,224ha에서 생산되는 쌀 34,700석 중 그 3분의 1이 이곳에서 생산되었다. 이는 곧 굴포천을 끼고 있는 옛날 갈대 숲으로 뒤덮혔을 이 일대가 1925년 한강수리조합이 탄생하면서 논으로 변경되어 주곡생산지로 탈바꿈되었다.

제주 고씨, 여홍 민씨, 전씨 등을 중심으로 자연 단위 마을로 씨족이 형성된 완전한 전형적인 한국의 시골이던 곳이 6·25동란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외부인이 이주해 와 급격히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원래 오정은 한자로 오동나무 '梧'에 정자 '亭'으로 이 지역에 오동나

무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또한 인조 때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지낸 고강동 출신 변삼근의 아호이기도 하다. 변삼근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애향심이 깊었다. 우리 고장의 오동나무는 겨울에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도 얼지 않은 개오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梧亭으로 써 오던 것이 일제에 의해 1914년 임의적으로 군면통폐합이 단행되어 전혀 다른 의미의 품丁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원래의 한자로 복귀하였다.

오정동은 조선말기까지도 오정리를 '오쟁이'라고 칭하였다. '오쟁이'는 짚으로 만든 바구니와 같은 것으로서 오쟁이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오정리로 칭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1) 큰말

오정리에 취락이 형성될 당시에는 제주 고씨를 주축으로 제일 먼저 형성 되었기 때문에 큰마을이라고 칭하였으며 고씨의 씨족은 비록 몰락되었으나 현재의 4통.10통.24통의 지역이다.

(2) 누른말

누른말은 오정동에 제2차로 여흥 민씨를 주축으로 형성된 마을로서 지형이 마치 누런 소가 누워 있는 모양과 같다 하여 와우리라고 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누른말이라 하였다. 현재의 9통.2통.22통 지역이다.

(3) 샛말

큰말과 누른말 사이에 있는 사이마을이다 해서 샛말이라고 칭하였으며, 전씨가 주축이 되어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현재 몇 가구 거주하고 있다. 현재의 3통.23통 지역이다.

(4) 새탄말

새탄말이라고 칭하게 된 유래는 샛말 옆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새탄말이라고 칭하였으며 각성바지가 살고 있었다. 현재의 1통과 25통 지역이다.

(5) 당구리(혹은 당고리)

현재의 화학부대가 있는 위치를 말하며 예전에 이 지역에는 무당의 집

결지로써 많은 무당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구리 혹은 당고리라고 불렀다.

이 지역 부근에 있는 들을 당고리들이라 하였다.

(6) 도당굿

현재의 5통 서정옹씨 집 위에 도당나무가 1개 있어 매년 1회씩 마을 발전을 기원하는 도당굿을 하였으나 6.25 당시 그 도당나무가 없어져 현재는 굿을 하지 않고 있다.

(7) 사문이

현재의 덕산초등학교가 있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어느 시대부터인지 는 알 수 없으나 '문이 4개 있다' 하여 사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2) 대장동

대장동은 조선 때 부평도호부 시절 주화곶면 대장리 지역이다. 이후 부천군이 탄생하면서 부천군 오정면 대장리가 되었다가 1973년 소사읍 일원으로 부천시가 되면서 김포군 오정면 대장리가 되었다가 2년 후인 1975년 다시 부천시로 복귀하여 부천시 오정동에 속해 발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가 있던 현 인천시 부평구 계산동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 지역은 굴포천 상류를 끼고 개울 건너 즉 서쪽은 인천에 속하며 동쪽은 부천시 대장동이 된다. 이 개울에는 그 옛날 아치형 돌다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를 한다리라 했다. 지금은 석축으로 쌓은 다리가 풍우에 휩쓸려 붕괴되어 다리 축조에 사용된 돌만이 개울 근처에 흩어져 있다.

한편 대장동은 반남 박씨가 대종을 이뤄 살고 있는데 본토인들 대부분이 타지방으로 이사를 해 박씨 문중은 몇 가구가 없고 타성바지들이 살고 있다.

대장동이란 마을 이름이 붙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즉 大壯은 大將에서 변화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풍수지리설에 의한 것으로 이 지역이 우뚝선 사람이 태어난다는데서 그 우뚝선 사람이란 곧 大將을 뜻한다고 풀이되어 대장을 大壯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반증은 옛날 이곳에 애기 장수가 있었다는 설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연유하였을 것이다.

(1) **한다리(대교)**: 자연마을로는 대장동이지만 행정동으로는 오정동이므로 이곳은 오정동 8통지역이다.

이 다리는 대장동과 인천시 부평구 계산동을 연결한다. 이 다리가 세워진 시기는 조선 고종 초이다. 당시 부평도호부로 가려면 도두모리, 즉 지금의 삼정동을 거쳐 굴포천을 건너야 하는데 그 길의 지름길이 이 지점이어서 이곳에 다리를 놓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약대 쪽과 그 언저리 일대는 갈대숲과 갯벌로 되어 있어 길을 닦는데 애로가 무척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리의 형태가 없어졌지만 한다리를 놓을 때 축조에 쓰인 돌이 개울바닥에 어지러히 흩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돌은 하나같이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리의 구조는 <아치형> 즉 구름다리 식으로 쌓아 올렸다고 한다.

다리가 붕괴된 원인은 서쪽 뚙의 기초가 잘못되어 수해로 기슭이 파헤쳐져 다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 한다. 한다리가 붕괴된 연도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한다리가 있던 곳은 일제 때 만든 근대식 콘크리트 철근 다리가 지금도 있다. 이 다리의 폭은 5m이며 난간 초입에 '중앙교'라고 다리 이름이 새겨져 있어 한다리는 근대에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동 주민들은 한다리에 대한 유래를 잘 알고 있어 한다리가 한양과 부평도호부로 다니는 유일한 교통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뒤마루들: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3) 돌다리들: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4) 한다리들: 한다리가 있는 주변의 들을 일컫는다.

(5) 흙다리들: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6) 섬말: 7통 지역.

(7) 큰말: 6통 지역.

(8) 굴포천(堀浦川): 강 자체가 꾸불꾸불하게 생겼다고 해서 굴포천이

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굴포천은 글자 그대로 냅가가 아닌 곳을 파서 냅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굴포를 처음 시행한 사람은 고려 최씨 무신정권기의 실권자 최우이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고 조선 중종 때도 김안로가 이곳을 뚫을려고 했으나 현재 부평 쪽에서 백운으로 넘어가는 호명사가 있는 원통이 고개를 뚫지 못해 실패한 것이다.

굴포천은 부평의 산곡동 즉 백마장을 끈 산에서 발원되어 부평 일원은 물론 계양산에서 흐르는 물과, 부천 일대에서 흐르는 물이 합쳐 굴포천을 형성하였다. 굴포천의 길이는 21Km이고 유역면적은 143.3km²이다.

문헌에 나타난 굴포

1.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 동국여지승람) (1468) 金浦縣 편: 굴포는 김포현 동쪽 17리 지점에 있다.

물의 근원이 인천부 井項(정항: 인천시 북구 동암역과 백운역 사이 십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일명 샘 고개)에서 나오는데 북쪽으로 흘러 고도강을 지나서 통진현 燕尾亭(연미정)으로 흘러 들어간다. 강에 해마다 다리를 놓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았다.

본현 사람 梁誠之(양성지)가 공조판서가 되었을 때 渡船(도선)을 설치할 것을 아뢰어서 승락받았다.

부평도호부 편: 대교천은 도호부의 동쪽 7리에 있다. 元積山(원적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직포가 되고, 김포현을 지나면서 굴포가 되며 濟法津(제법진)으로 흘러 들어간다.

2. 萬機要覽(조선후기의 재정, 군정을 설명한 책, 순조9년 심상규, 성영보 등이 편찬 (1809) 潛規(조규) 편: 김포 굴포는 고려 조에 崔怡(최이)가 사람을 보내 安南(현 부평)의 지세를 살펴보아 도량을 파서 바다를 통하여 하려다가 할 수 없어 중지하였다. 본조(조선조)에 들어와 金安老(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사람)가 다시 시작하였으나 역시 성취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김포의 굴포이다. 대개 안남으로부터 도량을 굴착하여 바다에 통하게 해서 조운선을 김포로 바로 대어 강화 앞 바다에 있는 손돌목의 위험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3. 정조실록 정조 21년(1797) 8월 병인조: 김안로가 착공한 굴포작업(40리에 조류를 통하여 하는 작업)이 원통현(인천직할시 북구 부평3동 호명사가 있는 고개)을 뚫지 못하여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조가 '원통이 고개는 만년 보호해야 할 땅인데 어찌 인력을 사용하여 뚫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봄아 공법상의 어려움과 더불어 풍수지리적인 용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여지도서(1760) 부평부 편: 신증 동국여지승람과 내용 동일. 김포현이 김포군이 됨.

김포현 편: 굴포는 김포현 동쪽 17리 지점에 있다.

5. 증보 문헌비고(1770) 부평 편: 굴포는 여지승람에는 대교천이라 하였다. 김포현 7리에 있으며 우수가 보인다.

김포현 편: 동국여지승람에는 대교천이라 하였다. 동쪽 17리 지점에 있으며 바다의 조수와 서로 연하고 있다.

6. 대동여지도(1871) '굴포' 상류는 直浦川(직포천)으로 표기되었다. 이 지도에서 살펴보면 직포천의 두 지류 중 부평의 남쪽에 있는 소래산에서 북류하는 하천과 부평의 남서쪽에서 동류하는 금륜이란 하천이 있는데 운하를 굴착한다면 금륜과 인천 축곳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가깝다. 이 경우 뱃길이 약 45Km가 단축되므로 조운에 소요되는 날수는 물론이고 운반비가 크게 절감되었을 것이고 손돌목에서 부질없는 인명의 피해와 세곡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7. 부평부읍지

산천조: 대교천은 도호부 동쪽 7리에 있다. 내용은 여지도서와 동일.

교량조: 대교는 도호부 동쪽 10리 직포에 있다. 무지개 모양의 난간이 3칸이다.

부평읍지

산천조: 위의 내용과 동일. 곧바로 수리조합이 되어 황야가 모두 수전 옥토가 되었다.

교량조: 위의 내용과 동일. 지금은 수리조합구역 내로 군포천 중아를 관통하여 흐른다.

'한다리'로 표기되어 있다.

8. 한국하천일람(1982년 건설부 발행 준용하천(3148호 65. 3. 1 고시):

본류제1시류제2시류	기점	종점	연장	유역면적
한강 군포천	부천시	상동	김포군 고촌면	식곡리, 한강 10.3 143.3
굴현천	김포 계양면	굴현리	김포군 계양면	동양리 2.25 8.10
(부천시)	(부천시)	굴포천		

9. 군포천과 주변 하천의 분수령(산과 고개):

군포천 하구 서쪽 끝<신곡양수장(1923년 조성)> - 옥녀봉 - 천등고개 - 부옹산 - 수로 - 계양산(394미터) - 장명이 고개 - 철마산(226) - 경인고속 도로 - 철마산(9165) - 장고개 - 경인선 - (원통현) - 만월산(187) - 철마산(201) - 비루고개 - 거마산(205) - 聖柱山(217) - 하우고개 - 遠美山(123) - 경인고속도로 - 공항동 - 방화동 - 개화산(128) - 동부간선 수로 - 전호산(74) - 군포천 하구 동쪽 끝

10. 군포천의 발원지 및 길이

간류 지류	발원지(기점)	종점	길이
군포천 - 인천 북구 부평동 철마산 북동계곡	하구	21Km	
굴현천 구산동 비루고개 북쪽 계곡	군포천	18	

부천문화의 재발견

(청천) 청천동 293고지 서쪽 계곡	굴포천	20
비리내천 부천시 중구 작동 110고지 동쪽 계곡	굴포천	14.5

(집필. 부천역사연구소장 최현수)